



기쁨의 언덕으로
**Pleasant
Hill**

사랑하는 _____ 님께 드립니다

**Be much
in secret prayer.
Converse less
with man, and more
with GOD.**

하나님과 일대일의 은밀한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Pleasant
Hill**

Dear Lord 주님,

From August 2022, 8월에는

Time 시간

Place 장소

에서

sitting before you 주님 앞에 앉아

eating your Word 주님의 말씀을 읽고

praying to you, 주님께 아뢰며

will have a fellowship with you.

주님과 교제하길 원합니다.

Name 이름

Could you not watch with me one hour?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one hour)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 26:40)

기쁨의 언덕으로, 이렇게 활용하세요!

화요일 · Tue

11

2022 JANUARY

노아가 함을 저주하다

Noah cursed Ham

4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60

0 Family BibleTime

“기쁨의 언덕으로”를 통해 온가족이 매일 성경 읽는 시간(Family BibleTime)을 가지세요. 자녀 제자화는 부모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1 찬송가

묵상을 시작하기 전 오늘의 찬송을 부르십시오. 찬송가의 고백은 묵상을 위한 기도과 같습니다.

2 묵상본문

오늘 묵상할 성경구절의 범위

3 통독본문

3년 1독을 위한 오늘 통독 범위

4 여는기도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합니다.

5

백집기

번제를 드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생물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언약을 노아와 맺으시며 그 증거로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보여주셨습니다.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고 잠든 자신의 모습을 목격한 아들 '함'을 저주하여 형제들의 종이 되라고 저주하였습니다.

1

새393장(통447장) 오 신실하신 주

2

묵상·창세기 9:20-27

3

통독·창세기 9장

6

20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21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22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23 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24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25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26 또 이르되 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션의 종이 되고

27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션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기쁨의 언덕으로’를 완료할 경우,

- 3년에 자동 신구약 일독
- 소그룹 모임 내용과 함께 1,000개의 적용 질문을 통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Reading Insight

Noah, who worshipped God with burned offerings, was blessed by God to be fruitful and increase in number. God made a covenant with Noah to never again destroy living creatures with a flood and as proof showed the rainbow in the cloud. Noah was drunk with wine and fell asleep and his naked body was exposed to his son, Ham, whom Noah cursed to be slaves of his brothers.

🎵 Hymn 393 Great is Thy Faithfulness

Meditation • Genesis 9:20-27

Reading Plan • Genesis 9

20 Noah began to be a man of the soil, and he planted a vineyard.

21 He drank of the wine and became drunk and lay uncovered in his tent.

22 And Ham, the father of Canaan, saw the nakedness of his father and told his two brothers outside.

23 Then Shem and Japheth took a garment, laid it on both their shoulders, and walked backward and covered the nakedness of their father. Their faces were turned backward, and they did not see their father's nakedness.

24 When Noah awoke from his wine and knew what his youngest son had done to him,

25 he said, "Cursed be Canaan; a servant of servants shall he be to his brothers."

26 He also said, "Blessed be the LORD, the God of Shem; and let Canaan be his servant.

27 May God enlarge Japheth, and let him dwell in the tents of Shem, and let Canaan be his servant."

7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먹거리와 이에 함께 경고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3-4절)

What was the food given by God and the accompanying warning? (9:3-4)

경고 안에 담긴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5-6절)

Please meditate deeply on the meanings contained in the warning. (9:5-6)

8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5 맥잡기

본문의 구조와 주제를 자세히 소개하여
묵상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6 영한 대역(ESV/개역개정)

영어와 한글을 함께 읽음으로 본문의 뜻을 더욱 명확히 이해합니다.

7 말씀 속으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질문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하고, 주님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8 묵상 중에 만난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적고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합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이렇게 활용하세요!

1 한 말씀 One Word

우리 영혼이
생명(life)을 누리고
예수님처럼 한 구절의
말씀의 검(sword)을
사용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2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목상한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결단을 갖습니다.

3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미 전역에 흩어져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2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3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영커리지 한인연합감리교회, 금원재(AK)
기쁨의 교회, 장준식(AL)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새해의 소망 VS 믿음 Hope and Faith in the New Year

2022년 새해의 첫 날입니다. 2020년도 부터 시작된 팬데믹이 사람들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새해의 첫 날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합니다. "팬데믹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포함하여, 가족들의 건강, 자녀들의 학업, 그리고 재정적 상황 등, 과거 보다는 나아지기를 기대하지요. 여러분도 새해를 향한 나름의 기대와 소망을 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며 기대와 소망을 갖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언약이자 반드시 이루어질 명령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은 '섭리, 뜻, 계획'이자, 사람들의 그것과는 분명 다를 것입니다. 새해 첫날, 많은 사람들은 나름의 기대와 소망을 품겠지만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 '섭리, 뜻, 계획'을 먼저 찾고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창세기 1장1절 위에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며 이 믿음 위에서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구하지 않으면, 결국 인간의 믿음이란 흔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으로 새해의 소망을 구하시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Today is the first day of 2022. The pandemic which began in 2020 changed our lifestyle but the first day of the new year still brings us new expectations and hope. We expect a better future than the past and make wishes like the end of the pandemic coming soon, good health for family members, good conditions at children's schools, good financial conditions for family, etc. I can guess that you all have your own expectations and hopes for the new year. Did God also have His own expectations and hopes as He created the world with His "Word"?

God's Word by itself is the promise and the command that would be fulfilled with certainty. Therefore, the expectations and hopes of God, that is, "His providence, will, and plan," would clearly be different from those of humans. On the first day of the new year, we may have a myriad of our own expectations and hopes, but as believers we must first seek and find the expectations and hopes of our Lord - "His providence, will and plan" - because our faith is built on Genesis 1:1. Unless we seek and find the expectations and hopes in life based on our belief in the Word, "God created the world," our faith will eventually be shaken. I pray that we begin the new year today by seeking hope in the new year based on our faith in the Word.

‘기쁨의 언덕으로’를 완료할 경우,

- 3년에 자동 신구약 일독
- 소그룹 모임 내용과 함께 1,000개의 적용 질문을 통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4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5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6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7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Facebook / YouTube 바로가기 QR 코드를 스캔하십시오

23

4 오늘의 감사

감사는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5 Journaling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합니다.

6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자녀들의 매일 말씀묵상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스티커를 활용해보세요

7 [기쁨의 언덕으로]

Facebook / Youtube 바로가기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Facebook / Youtube 공식계정으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일독/말씀묵상

혼자서도 문제없다

1 시간을 정해놓고 읽기

매일 아침 혹은 저녁 등 혼자 조용히 정기적으로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시간을 고정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경건의 훈련은 정기적인 시간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찬송, 기도

Pleasant Hill에는 그날 부를 찬송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찬송을 통해 마음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시킵니다.

3 어떻게 읽을까?

성경을 읽으며, 단락이 끝날 때 그 단락의 내용을 문장으로 요약하거나 키워드를 기록해 보세요. 핵심구절이나,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는 밑줄도 그어 보십시오. 각 구절에 대한 자신만의 기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새롭게 깨달아지는 구절에는 느낌표, 이해가 안 되는 구절에는 물음표,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는 전구 표시 등. 본문을 이렇게 한 번 읽고, 표시해 놓은 구절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4 Journaling, 예수님과 함께

일기(Diary)를 쓸 때 주어는 나(I)입니다. 하지만 저널링(Journaling)의 주어는 예수님(Jesus)입니다. 나의 일상을 반성하고 기록하는 일기도 좋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서 행복을 찾는 우리 여정을 기록하는 저널링은 더 좋습니다.

5 마무리는 이렇게!

자신의 One Verse를 카톡이나 SNS를 통해 가까운 친구들과 나누는 것도 성경을 완독하고, 꾸준히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Family Pleasant Hill

기존의 가정예배가 부담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설교일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 없이 말씀을 함께 읽고, 각자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Family Pleasant Hill”이 가능합니다. 이제 부모가 자녀를 제자화해야 합니다!

1 언제가 좋을까요?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세 번, 매일도 가능합니다. 편안하게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좋습니다. 저녁 시간 이후, 혹은 아침 식사 전도 좋습니다. 시간은 20-30분 이내가 좋습니다.

2 모임 장소 Tip!

가족이 다 함께 둘러앉을 수 있는 편안한 장소이면서 어떤 미디어에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장소가 좋습니다. Family Pleasant Hill 전에는 절대 TV를 켜지 않도록 합니다.

3 인도자와 대표 기도자 정하기

인도는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결정한 원칙을 따라 순서를 정합니다. 아바>엄마>첫째>둘째, 혹은 집에서 키가 큰 순서를 따라, 노래를 잘하는 순서를 따라 등. 마무리 기도는 인도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하거나, 사회의 반대 순서, 혹은 모두가 돌아가며 마디기도를 해봅니다.

* 소그룹교재를 가정예배 자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기쁨의 언덕으로 Facebook 페이지에 목상을 위한 다양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www.facebook.com/kumcdevotion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3	민수기 Numbers 5-6장 □	4	민수기 Numbers 7-8장 □	5	민수기 Numbers 9장 □	6	민수기 Numbers 10장 □
10	민수기 Numbers 15장 □	11	민수기 Numbers 16장 □	12	민수기 Numbers 17-19장 □	13	민수기 Numbers 19장 □
17	민수기 Numbers 22장 □	18	민수기 Numbers 23-24장 □	19	민수기 Numbers 25장 □	20	민수기 Numbers 26장 □
24	민수기 Numbers 29장 □	25	민수기 Numbers 30장 □	26	민수기 Numbers 31장 □	27	민수기 Numbers 32장 □
31	민수기 Numbers 36장 □						
				07 Jul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09 Septem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겸손

Humility

앤드류 머레이(Andrew Murray)

Why _ 왜 읽어야 할까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길 원한다면
먼저 예수님의 겸손을 구하라. 그분 안에 있는 깊은 겸손의 회복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What _ 어떤 보배인가

책 소개 『겸손』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오랜 고민과 목상이 만들어낸 고전으로 겸손에 대해 가르쳐 주는 것은 물론, 그리스도에게 겸손을 배우도록 한다. 아울러 겸손이 우리 삶과 신앙의 전체 영역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깨닫게 해주고 있다. 겸손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소개 앤드류 머레이(Andrew Murray)

평생을 남아프리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준 스코틀랜드의 선교사 앤드류 머레이. 그는 240여 편의 주옥같은 글들을 남겼는데,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의 경건생활과 기도에 관한 것이다. 그가 쓴 저서의 특징은 신앙의 핵심을 찾아서 일목요연하게 해설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모든 저서는 머레이 자신의 경건과 기도 생활 가운데에 직접 깨닫고 체험한 것을 담고 있기에 더욱 놀라운 깊이가 있으며, 동시에 우리의 신앙생활과 직결되어 있다.

Chapter 2 겸손 : 속죄함의 비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인간에게 들어온 하나님의 삶은 우리가 뿌리내리고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안에 겸손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마음 안에 겸손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없다면 이제부터라도 겸손을 간절히 구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필요와 감정에 대해 무관심한 사랑이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랄하고 날카롭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도 하고 자신은 정직하고 바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속단하며 화를 내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교만이라는 뿌리를 내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항상 다른 사람의 유익이 아닌 자신의 유익만 추구합니다. 이런 사악한 교만은 모든 곳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 교만을 감지해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겸손이 항상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면 우린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날마다 밤낮으로 겸손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그 결과는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 안에 얼마나 겸손이 없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또한 그리스도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의 겸손을 배우십시오. 그것은 속죄함의 비결이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hidden root)입니다. 매일매일 겸손에 몸을 깊이 담그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항상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빛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자아 그리고 본성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주 만물에 우리의 구원 또는 구원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겸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서 주신 첫 번째 불변의 조건(the first

unalterable term)은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타락한 본성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자아부인과 겸손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자아는 우리의 타락한 죄악의 뿌리, 가지 그리고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들과 인간들의 모든 죄악은 그들 안에 있는 교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반면 모든 하늘의 선들은 겸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겸손이라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위한 대투쟁(the great struggle for eternal life)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만과 겸손 간의 대투쟁입니다. 겸손과 교만은 두 개의 지배 세력(two master powers)이며 두 개의 왕국(two kingdoms)입니다. 겸손과 교만은 인간을 영원히 소유하기 위한 투쟁을 벌입니다. 겸손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단 한 가지만 존재하니,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뿐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소유할 때까지 우리 안에는 교만과 자아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받은 타락한 죄성인 자아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겸손으로 물리치는 선한 싸움(the good fight)을 끊임없이 해야 할 것입니다. (W. Law, *Address to the Clergy*, p.52. 성령의 법[Law on the Holy Spirit]에 대한 이 책이 금년에 출판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Memo

기쁨의 언덕으로
Pleasant
Hill

민수기

Numbers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 머물며 하나님과 새 언약을 체결한 후,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기 전 준비 과정(1-10장 전반부)과 가나안 입구 모압 평야까지 이르는 긴 여정(10장 후반부-36장)에 관한 기록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군대를 정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세라고 하십니다(1장). 민수기(Numbers)의 이름이 여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인구조사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계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직접 싸움에 나가는 것과는 다른 특별한 직무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3-4장).

계수된 이스라엘 백성은 진영을 갖춥니다(2장).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각 지파들이 위치합니다. 행진을 할 때에도 먼저 나가야 할 지파와 뒤따르는 지파가 정해졌습니다. 또한 레위 지파의 각 자손들은 성막의 이동과 관리를 맡았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행진을 하는 동안 지켜야 할 규례들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5-7장). 이스라엘은 언제나 기록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택함 받았기 때문입니다(8장). 이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또한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은 나팔로 행진의 때를 알게 하셨습니다(9-10장). 이제 모든 준비가 갖춰졌습니다. 질서가 세워지고 군대가 조직되었습니다. 마침내 구름기둥이 떠오르고 가나안 땅을 향한 이스라엘의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년 이월 이십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매”(민 10:11). 애굽을 떠난 지 2년 2개월 20일만입니다. 성막이 진 가운데에서 레위 지파에 의해 움직였고, 나머지 열한 지파가 그 정한대로 구름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여정은 시내 광야에서의 철저한 준비와 기대와는 달리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민수기의 후반부는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불평과 반역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수기를 불평의 책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보다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 자들에 대한 반역을 반복하고,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였고 다시 용서하심으로 광야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한편 민수기 13-14장에 기록된 정탐꾼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절정을 이룹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절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의심한 결과입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입성을 거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민 14:2)이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설득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민 14:28), “너희 중에서 이십 세 이상으로서 계수 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민 14:29-30)고 말씀하십니다. 실제 시내산에서 모압평지까지는 얼마 되지 않는 거리였지만 이스라엘은 38년 이상을 광야에서 떠돌게 되었습니다. 민수기의 또 다른 이름이 ‘광야에서(베미드바르)’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시 20세 이

상이었던 자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고백했던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광야 생활을 시작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죄를 회개하기 보다 먼저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레위 자손인 고라와 르우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온 등의 회중의 유명한 족장 250명이 모세에게 반역했습니다. 결국 땅이 갈라져 고라와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삼켰고, 250명의 반역자들은 하나님의 불에 타 죽게 됩니다(16장). 그러나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죽음에 책임을 물으며 모세와 아론을 집단 폭행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사 열병으로 14,700명을 죽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지도자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만 움이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레위인들이 반역하지 못하도록 레위인들의 직무와 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하셨습니다(17-18장).

하지만 이스라엘의 반역은 계속되었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어 그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이스라엘은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불평합니다(20장). 형 아론이 죽어 애곡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이스라엘은 가는 길이 좋지 않라며 모세와 하나님께 불평합니다(21장).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뱀뱀을 세워 다시 저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뤄가기 원하십니다.

반면 이스라엘의 위기는 진 밖에서도 있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발람의 술수를 빌려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 발람에게 경고하시고 발람의 저주를 축복의 예언이 되게 하셨습니다(22-24장).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복받기로 결정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싯딤에 머무르던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였고, 모압 신에게 절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력에 대한 반역, 먹을 것과 마실 것에 대한 불평을 넘어 음행과 우상숭배로 이스라엘은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에 열병을 내

리셨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25장).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기로 만든 것은 소리 없이 스며든 음행의 죄였습니다. 모든 시대와 민족을 불문하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 사건 이후 이스라엘은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민수기 1장의 첫 번째 인구조사와 40년을 광야에서 지내고 행한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병력의 수는 약 60만으로 거의 일치합니다. 자손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이전의 이스라엘 군대는 모두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로 구성된 군대가 세워졌습니다. 새롭게 정비된 이스라엘 군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칼 쓰는 교육, 힘쓰는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예배드리는 법을 배웠습니다(26-28장).

하나님의 군대가 싸우는 법이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도 세워졌습니다(27장). 이로써 출애굽 1세대, 광야 세대에 대한 심판은 완성되었으며, 약속의 땅을 차지할 새 세대가 준비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준비되었고 가장 먼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31장).

새 세대는 동편 요단을 점령했습니다. 이때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요단강 동쪽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세 지파가 다른 지파와 함께 요단강 서편을 위해 싸울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그 땅을 점령하는데 헌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32장). 또한 그 땅의 모든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고 명령하십니다(33장). 이는 가나안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을 떨하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땅의 분배를 시작하십니다(34장). 또한 레위인을 위한 성읍을 나누시고,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35장). 마지막으로 슬로브핫 딸들의 순종을 통해 결혼 한 여자들이 받을 유산과 그 방법에 대해서도 정해주십니다(36장).

민수기는 불평과 불만, 반역과 징계의 이야기들로 가득하지만, 결국 땅을 나누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며, 젃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

아닐 소망과 희망으로 끝이 납니다. 일주일이면 갈 길을 40년이나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는 믿음과 우상 숭배를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켜내야 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윌리엄 벨링거(William H. Bellinger)에 따르면 민수기의 반복되는 주제는 거룩, 질서, 불순종, 땅 그리고 역사입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질서를 지키며 살아야 할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인해 옛 세대는 퇴장하게 되고 새 세대가 부상함으로 새로운 역사, 곧 하나님 나라의 언약백성의 정체성을 이뤄가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참고서적

은준관 외, '구원사로 접근하는 TBC 성서연구'(TBC 성서연구원)

이애실 '어, 성경이 읽히지 않네'(성서원)

강성열 외 '민수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두란노 아카데미)

윌리엄 벨링거 '레위기/민수기'(성서유니온)

Memo

기쁨의 언덕으로
Pleasant
Hill

월요일 • Mon

01

2022 August

계수하라

Take a census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1장에서는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세우시고, 병력의 숫자를 모두 세도록 하셨습니다. 2장에서는 진영을 배치하고, 행군 순서를 정함으로써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준비시키십니다.

🎵 새267장(통201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독상 • 민수기 1:1-4, 16-19

통독 • 민수기 1-2장

1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3 이스라엘 중 이십 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4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16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17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18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이십 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1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Reading Insight

In Chapter 1, the head of each tribe was identified and the number of able men older than 20 was counted. In Chapter 2, all the divisions were established and the marching order confirmed so that they were ready to begin their journey to the Promised Land.

🎵 Hymn267 Tis the Promise of God

Meditation • Numbers 1:1-4, 16-19

Reading Plan • Numbers 1-2

1 The LORD spoke to Moses in the wilderness of Sinai, in the tent of meeting, on the first day of the second month, in the second year after they had come out of the land of Egypt, saying,

2 “Take a census of all the congregation of the people of Israel, by clans, by fathers’ houses, according to the number of names, every male, head by head.

3 From twenty years old and upward, all in Israel who are able to go to war, you and Aaron shall list them, company by company.

4 And there shall be with you a man from each tribe, each man being the head of the house of his fathers.

16 These were the ones chosen from the congregation, the chiefs of their ancestral tribes, the heads of the clans of Israel.

17 Moses and Aaron took these men who had been named,

18 and on the first day of the second month, they assembled the whole congregation together, who registered themselves by clans, by fathers’ houses, according to the number of names from twenty years old and upward, head by head,

19 as the LORD commanded Moses. So he listed them in the wilderness of Sinai.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

Why did God command Moses to take a census of the descendants of Israel? (v. 3)

레위 지파를 계수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53절)

Why weren't the Levites counted? (v. 53)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워싱턴감리교회, 이승우(MD)
하늘비전교회, 장재웅(MD)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The Faithful Promise of God

뉴욕의 9.11 Memorial & Museum에는 9.11테러로 희생당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슬픔을 위로하고,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민수기 1장은 각 지파의 이름과 숫자가 반복적으로 쓰여있습니다. 70명에 불과했던 야곱의 자손이 장정만 60만여 명의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아브람에게 약속하신 자손의 복이 성취되었음을 자신들의 눈으로 목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야가 하나님은 “네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창 15:16)라며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늘 신실하게 이뤄 가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회막을 진영 정중앙에 배치함으로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세워갑니다.

All the names of those killed by the terrorist attack are recorded on the National September 11 Memorial Museum in New York City. It is to remember the deceased, comfort the families, and remind the world that it must not happen again.

The names of all tribes and their numbers are repeated in Chapter 1 of Numbers. The descendants of Jacob started with 70 but had multiplied to a large nation of 600,000 only counting adult men. The Israelites themselves had witnessed the promise of God to Abraham fulfilled in regard to his descendants. The Israelites remembered once again the promise of God and regained strength to move forward to the Promised Land. Furthermore, God mentioned in Genesis 15:16, “In the fourth generation your descendants will come back here” and that the Israelites would leave Canaan and return. God always faithfully fulfilled His promise. Now the Israelites are beginning to establish their identity as the People of Covenant by setting up the Tent of Meeting at the center of their division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YouTube @기쁨의 언덕으로



화요일 · Tue

02

2022 August

거룩한 임무

Holy obligatio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하나님은 성소의 진영을 세우시고 이제 진영의 내부를 담당하는 성막의 관리자들을 조직하십니다.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와 더불어 각 지파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십니다.

🎵 새424장(통216장) 아버지여 나의 맘을

특상·민수기 4:1-8, 17-20

통독·민수기 3-4장

- 1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 2 레위 자손 중에서 고향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 3 곧 삼십 세 이상으로 오십 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 4 고향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 5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 6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 7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 8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 17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 18 너희는 고향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 19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뭘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 20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Reading Insight

God set up the camp at the sanctuary and organized managers to manage the tabernacle inside the camp. The census was taken for the Levites and detailed duties of all tribes were pronounced.

🎵 Hymn424 Take My Heart, O Father

Meditation • Numbers 4:1-8, 17-20

Reading Plan • Numbers 3-4

- 1 The LORD spoke to Moses and Aaron, saying,
- 2 “Take a census of the sons of Kohath from among the sons of Levi, by their clans and their fathers’ houses,
- 3 from thirty years old up to fifty years old, all who can come on duty, to do the work in the tent of meeting.
- 4 This is the service of the sons of Kohath in the tent of meeting: the most holy things.
- 5 When the camp is to set out, Aaron and his sons shall go in and take down the veil of the screen and cover the ark of the testimony with it.
- 6 Then they shall put on it a covering of goatskin and spread on top of that a cloth all of blue, and shall put in its poles.
- 7 And over the table of the bread of the Presence they shall spread a cloth of blue and put on it the plates, the dishes for incense, the bowls, and the flagons for the drink offering; the regular showbread also shall be on it.
- 8 Then they shall spread over them a cloth of scarlet and cover the same with a covering of goatskin, and shall put in its poles.
- 17 The LORD spoke to Moses and Aaron, saying,
- 18 “Let not the tribe of the clans of the Kohathites be destroyed from among the Levites,
- 19 but deal thus with them, that they may live and not die when they come near to the most holy things: Aaron and his sons shall go in and appoint them each to his task and to his burden,
- 20 but they shall not go in to look on the holy things even for a moment, lest they die.”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제사장 직무를 이어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 3:4, 레 10:1-3)

Why couldn't Nadab and Abihu succeed Aaron as priests? (Num 3:4; Lev 10:1-3)

고핫 자손이 맡은 직무는 무엇입니까? (3-15절)

What are the duties of the Kohathites? (vv. 3-15)

하나님이 고핫 자손에 대하여 모세와 아론에게 하신 부탁은 무엇입니까? (18절)

What did God ask Moses and Aaron to do for the descendants of the Kohathites? (v. 18)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어깨에 메는 일 Carrying on the Shoulder

이스라엘은 광야를 행군하는 동안 성막을 해체하고, 이동하고, 설치하기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레위 자손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 레위 자손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 자손은 전쟁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성막을 이동하기 위해 거룩함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거룩이 부정하게 되면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고탓 자손에게는 성물의 이동이 맡겨졌습니다. 성물은 반드시 삼중으로 덮어 이동해야 했으며, 성물 중 어느 것도 직접 손낼 수 없었습니다. 짐승이나 마차에 태울 수 없고, 반드시 어깨에 메어 이동해야 했습니다. 성물을 보거나 만지면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 때에, 언약궤를 운반하던 제사장 옷사가 흔들리는 언약궤를 만짐으로 죽임을 당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삼하 6장). 성막에 사용된 물건들과 집들이 값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레위 자손들과 같이 그것들을 명하시어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While Israel moved through the wilderness, they repeatedly dismantled, moved, and set up the tents. But only the descendants of the Levites were allowed to do those things because God had chosen the descendants of the Levites instead of the eldest son of Israel. Levites did not have to go to war, but they had to maintain holiness to move the tabernacle. If their holiness was compromised, they could not escape death.

Descendants of the Kohathites had the obligation to move holy things. Holy things had to be wrapped thrice when moved, and they were not to be touched directly. They were not to be carried by animal or by cart, but they had to be carried on the shoulder. Seeing or touching holy things was punished by death. That was why, during the time of King David, Uzzah was struck down by God when he touched the ark that was shaking when the oxen stumbled (2 Sam 6). The holy things and furnishings used in the tabernacle were not special because of their value. God distinguished them as holy by pronouncing them with the descendants of the Levites.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무지개연합감리교회, 조태섭(ME)
디트로이트제일중앙연합감리교회, 김대기(MI)
목회자를 위한 기도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수요일 · Wed

03

2022 August

진영 밖으로

Out of the camp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5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정결한 공동체가 될 것을 요구하시면서 부정한 자의 격리, 죄의 대가, 의심에 관한 법 등을 가르쳐주십니다. 이어 6장에서는 나실인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새420장(통212장) 너 성결키 위해

독상·민수기 5:1-10

통독·민수기 5-6장

-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 3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 4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 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 6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 7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 값을 온전히 갚되 오분의 일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 8 만일 죄 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 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숫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 9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 10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빈 가방 Empty Bag

토기장이들은 아무리 오랜 시간 공을 들이고 정성껏 도자기를 빚었다 할지라도, 작은 흠이라도 있으면 깨뜨려버립니다. 토기장이의 뜻대로 그릇을 만들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진영에 모든 부정한 것들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진을 구성하고, 내부 조직을 단단히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정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 명령을 더 내리십니다. 그것은 바로 '정결'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진의 중앙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현존하시기에 부정한 모든 것들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그분과 교제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긴 여행을 위해 우리는 가방을 짊어 준비하지만, 하나님은 순례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우리 안의 더러운 것을 모두 내어 버리라고 하십니다.

Potters readily destroy any pottery during production if the slightest defect is detected, even if a lot of time and effort were spent to produce it. It is natural to produce pottery as the potter wishes and redo the work if what the potter produced does not meet the potter's satisfaction. Similarly, any unclean thing was not allowed in God's camp.

With the tribes and duties firmly solidified and camp set up, the only thing the Israelites were waiting for was a marching order to move forward. Then God handed down one additional command to Israel. That was "cleanness." God resided at the center of their camp, therefore Israel had to expel all unclean things to outside of the camp. This was to maintain the holiness of the people of Israel. Because God is holy, all the people of God who come in contact with God must also be holy. When we travel a long distance, we tend to fill our bags with a lot of things, but God commands us, as pilgrims in this world, to empty all unclean things out of us.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 김응용(M)

앤아버한인연합감리교회, 유준식(M)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YouTube @기쁨의 언덕으로



목요일 · Thu

04

2022 August

필요한 대로 쓰게 하라

Let them use
as needed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성막이 모두 세워진 후, 모세는 성막과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성막에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 드린 예물의 수와 종류가 열두 번 반복하여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 새215장(통354장)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독상 · 민수기 7:1-11

통독 · 민수기 7장

1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2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3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여섯 대와 소 열두 마리이니 지휘관 두 사람에게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한 사람에게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5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6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7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네 마리를 주었고

8 므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여덟 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9 고향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메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10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1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멘케이토한인연합감리교회, 손용익(MN)
미네소타한인복음연합감리교회, 윤국진(MN)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각기 그 직임대로 According to the Duty of Each Person

모세가 성막의 모든 것들을 거룩히 구별하였습니다. 성막은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물들 또한 성막 봉사에 사용되기 위해 구별되었습니다. 이러한 예물은 성막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노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자발적 다짐이었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각 자손에게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와 소를 나누어주셨습니다. 가장 무거운 것을 들어야 하는 므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넷과 소 여덟 마리를,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둘과 소 네 마리를 주셨습니다. 반면 고향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직임은 성물을 어깨에 메어 나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레위 지파는 직임의 분배를 받을 때에도, 수레와 소를 나눠가질 때에도 불평이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임은 무엇입니까? 각기 직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Moses distinguished all things in the tabernacle as holy. Now the tabernacle became a holy place where God dwelled. That day, the leaders of Israel brought offerings to God. The offerings were set apart to be used in service of the tabernacle. These offerings represented the voluntary assurance of the people of Israel to obey God because God led and ruled Israel as He dwelled in the tabernacle.

On the other hand, God gave carts and oxen to the descendants of Israel in accordance with their duties. God gave four carts and eight oxen to the descendants of the Merarites and two carts and four oxen to the descendants of the Gershonites, both of which had to carry heavy loads. On the other hand, nothing was given to the descendants of the tribe of the Kohathites because their duty was to carry holy things on their shoulders.

The Levites did not complain or hesitate when the duties were distributed and assigned or when the carts and oxen were given. What are the duties assigned to us? We must be ready to obey and accept the assignment to be used as God has planned for each of u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금요일 · Fri

05

2022 August

길을 안내하는 구름

The cloud that is
our road map
and guide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레위인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레위인을 정결하게 한 후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인도할 구름이 성막을 덮었습니다.

🎵 새549장(통431장) 내 주여 뜻대로

독상·민수기 9:15-23

통독·민수기 8-9장

15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며

16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17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18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와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19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렐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20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와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와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21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22 이들이든지 한 달이든지 일 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23 곧 그들이 여호와와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와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와 명령을 따라 여호와와 직임을 지켰더라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Two Days or One Month

아브람은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곳으로 가야 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그런 아브람에게 하나님은 열국의 아비라는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광야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은 바로 절대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머물고 싶어도 구름이 떠오르면 떠나야 했고, 떠나고 싶어도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떠나야 할 시기와 쉬는 시간을 놓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구름의 움직임에 광야 생활의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신앙의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내 생각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이 계신 곳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구름이 어디를 향하는지, 언제 움직일지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Abraham was a man of obedience to God, because he moved when commanded by God and stopped if God so commanded. He left his hometown without knowing where to go. To Abraham, God had bestowed a new name meaning the "father of nations". The descendants of Abraham were moving in the wilderness clinging to the promise of the God of Abraham.

What Israel needed in the wilderness was absolute obedience. They must be ready to move any time. They had to move if the cloud moved even if they wanted to stay, and they had to stay where they were if the cloud stayed. But Israel did not agonize over when to move and when to stay and rest. All their decisions in the life of the wilderness were based on the movement of the cloud by God. Our faith journey is the same. Regardless of my own thoughts, our journey should follow where God's will is. All we need to do is to watch when and where the cloud is moving.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미네소타한인연합감리교회, 백성범(MN)
세인트루이스한인연합감리교회, 이명균(MO)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YouTube @기쁨의 언덕으로



토요일 · Sat

06

2022 August

은 나팔 소리로

The sound of
the silver trumpet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거대한 무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소리에 의해 행군을 진행했습니다. 10장은 이 나팔의 제작과 사용법 등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마침내 구름을 따라 바란 광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 새360장(통402장) 행군나팔 소리에

특상·민수기 10:1-10

풍독·민수기 10장

-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 2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 3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네게로 나아올 것이요
- 4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 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게로 나아올 것이며
- 5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 6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 7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 8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에 영원한 율레니라
- 9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 10 또 너희의 회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Reading Insight

The huge group of Israelites moved to the sound of the trumpet. Chapter 10 illustrated the manufacturing and use of the trumpet. Ultimately, Israel began to move to the wilderness of Paran following the cloud.

Hymn360 Bugle Calls are Ringing Out

Meditation • Numbers 10:1–10

Reading Plan • Numbers 10

- 1 The LORD spoke to Moses, saying,
- 2 “Make two silver trumpets. Of hammered work you shall make them, and you shall use them for summoning the congregation and for breaking camp.
- 3 And when both are blown, all the congregation shall gather themselves to you at the entrance of the tent of meeting.
- 4 But if they blow only one, then the chiefs, the heads of the tribes of Israel, shall gather themselves to you.
- 5 When you blow an alarm, the camps that are on the east side shall set out.
- 6 And when you blow an alarm the second time, the camps that are on the south side shall set out. An alarm is to be blown whenever they are to set out.
- 7 But when the assembly is to be gathered together, you shall blow a long blast, but you shall not sound an alarm.
- 8 And the sons of Aaron, the priests, shall blow the trumpets. The trumpets shall be to you for a perpetual statute throughout your generations.
- 9 And when you go to war in your land against the adversary who oppresses you, then you shall sound an alarm with the trumpets, that you may be remembered before the LORD your God, and you shall be saved from your enemies.
- 10 On the day of your gladness also, and at your appointed feasts and at the beginnings of your months, you shall blow the trumpets over your burnt offerings and over the sacrifices of your peace offerings. They shall be a reminder of you before your God: I am the LORD your Go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나팔을 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8절)

Who played the trumpet? (v. 8)

이스라엘의 진영 가장 앞에는 무엇이 이동합니까? (33절)

What was at the forefront of the division of Israel? (v. 33)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 The Sound That We Need to Hear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은나팔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 구름이 오르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면 레위 자손은 성막을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진영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에 따라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장엄한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팔 소리는 200여만 명에 이르는 민족의 대이동을 위한 유일한 신호였습니다. 소리의 횡수나 크기에 따라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나팔소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들어야 하는 소리입니다. 곧 우리가 수시로 묵상하고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가기 싫은 사람도, 조금 기다리기 원하는 사람도 나팔 소리가 들리면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God commanded Moses to produce the trumpets of hammered silver. When the cloud lifted, the Israelite would set out. The descendants of the Levites began to dismantle the tabernacle. The priests sounded the trumpets. The Ark of the Covenant was placed at the front of the division. Then each tribe began to move in accordance with the order given by God. That must have been a sublime scene.

The trumpet sound was the unique signal for the people of Israel numbering almost two million to start moving. The number of repetitions of the trumpet sound and its intensity conveyed different messages. The trumpet sound is the kind of sound that needs to be heard by those of us who live in a world that is almost like wilderness. It is the sound of God that we need to hear as we need to heed and meditate often. Even those who do not want to move and those who may wish to wait a bit longer must move when they hear the trumpet sound. At the sound of God's trumpet, we must obey God's lead. God sees our obedience, will remember us, and will promise to be our God.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그린스보로한인연합감리교회, 서준석(NC)
아가페한인연합감리교회, 이우일(NC)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AUGUST

07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

제 목
T i t l e

Blank area for writing the title.

성경 본문
S c r i p t u r e

Blank area for writing the scripture.

주요 내용
O u t l i n e

Blank area for writing the outline.

하나님의
음 성
G o d ' s V o i c e

Blank area for writing God's voic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간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김철기 목사(엠마오연합감리교회 VA)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행 28:30-31)

전도를 하다가 고소를 당한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로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 또 세계의 중심 로마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으로(롬 1:15) 드디어 로마에 왔을 때가 A.D 61년경입니다. 그는 재판을 기다리며 2년의 가택연금 상태로 간혀 있었습니다. 30-31절은 그때의 바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간힘의 시간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간힘의 시간을 성도로서 교회로서 가정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보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간힘 속에서 우리는 내 일상의 장소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구류 상태였던 바울 곁에는 항상 그를 지키는 로마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간힘 속에서 삶의 지향과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어디가 성소일까요? 우리는 흔히 영적인 훈련을 한다는 것을 어디 다른 데 가서 무슨 특별한 수행을 따로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간혀 있는 여기, 내 반복되는 일상에서라고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난세는 간힘의 시간, 그러나 보이는 현상 저변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재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 내 집에서 시작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장소는 성소가 됩니다.

간힘 속에서 우리는 나의 삶의 가장 절실한 것을 다시 물어야 합니다. 바울은 간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삶에 대해 어떻게 살 것인가 질문했고 그 답을 찾았습니다. 여기가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일상에서 찾아오는 유대인들을 접견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거침없이 가르치고 전파했습니다. 그 작은 셋집에서의 복음 전파가 결국 세계 복음화를 가져왔습니다. 과연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 처한다면, 또는 인생의 남은 시간에서 단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그건 무엇이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할 나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나 자신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식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갠힘 속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묻고 찾아 행하는 구도자, 행도자,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갠힘 속에서 우리는 코로나 너머에 보이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나를 둘러싼 세상의 표면을 바라보면 바울이나 우리나라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갠힘의 시간 중에도, 보이는 것들 너머의 하나님의 세계를 예감하며, 그분이 예비하신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셋집에서 바울은 놀랍게도 옥중서신(엡, 빌, 골, 몬)을 기록했고, 또 이때 디모데(빌 1:1; 골 1:1), 두기고(엡 6:21), 에바브로디도(빌 4:18)의 위로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 후 구류 상태에서 석방되어 에베소, 마게도냐(딤후 1:3), 드로아(딤후 4:13), 그레테(딤후 1:5), 니고볼리(딤후 3:12) 등으로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 후 바울은 그토록 바라던 서바나에까지 전도를 하고(롬 15:23, 28), A.D 67년에 다시 투옥되어 네로에게 순교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간혀 있지만, 간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자신의 삶을 준비한 결과는 이토록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퍼즐의 파편들이 아니라 그것을 맞추어서 나오는 전체성을 바라보는 일은 난세일수록 중요합니다. 바울은 가야만 하는, 잘 지나야만 했던 천리 길의 2년의 퍼즐 조각을 의연하게 잘 맞추어 나아갔습니다. 자기를 가두고 있는 보이는 것들 너머의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끌리며 Post-셋집, Post-로마를 준비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시작된 그의 일생은, 술한 우겨쌈을 이겨내고 꽃피우며 더 큰 열매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무덤에서 그러하셨듯이, 바울의 갠힘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갠힘을 통해 우리의 갠힘, 교회의 갠힘, 세상의 갠힘을 보게 하십니다. 지난날 일제 강점기나 오늘날의 COVID-19와 같은 역사의 광야를 지날 때, 우리의 행동반경은 제한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대하신 꿈과 계획은 세상에 그리고 나에게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갠힘 속에 들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체득하고, 바울처럼 역으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민 9장)을 따라가는 우리들,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월요일 · Mon

08

2022 August

고기를 달라

Give us meat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철저한 준비와 거룩한 출정에 비하여 광야의 첫 이야기는 광야의 고단함, 배고픔에 대한 불평입니다. 게다가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권위에 대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 새197장(통1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특상·민수기 11:4-15, 31-35

통독·민수기 11-12장

- 4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 5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 6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 것도 없도다 하니
- 7 만나는 깻씨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 8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찧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 9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 10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르므로 여호와와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 11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 12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어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 13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 14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 15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 31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 32 백성이 일어나 그 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퍼 두었더라
- 33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시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 34 그곳 이름을 기브릇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 35 백성이 기브릇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패를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임종선(NH)
가득한교회, 이강(NJ)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배은망덕 Bite the Hand That Feeds

“물에 빠진 사람을 구했더니 보따리를 내어 놓으라 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이 마치 바로 그 속담 속 물에 빠진 사람 같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 살게 하신 하나님께 이제는 고기를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의 대가로 받던 음식들을 떠올리며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출 4:11) 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와와 손이 짧으냐”(민 11:23)라고 답하신 후, 바람을 불어 메추라기를 보내시어 원하는 대로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탐욕과 원망의 대가로 이스라엘은 고기를 다 채 씹기도 전에 죽임을 당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렀습니다(약 1:15).

저들의 불평과 불신은 소소한 일상에서, 아주 평범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불평과 원망의 말들이 습관처럼 배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There is a proverb that says “when a drowning man was saved, the man demanded his bag”. Israel in the wilderness behaves like the drowning man in the proverb. Israel was saved from slavery in Egypt and saved again when they crossed the Red Sea, and now they are screaming to God asking for meat. They complained about the lifestyle in wilderness and reminisced about the food they received in Egypt as wages for slavery.

When Moses was called by God, He asked a trembling Moses, “Who gave man his mouth?” (Exod 4:11). God answered Moses, “Is the LORD’s arm too short?” (v. 23). Then a wind went out from God and drove plentiful quail in from the sea and fed the people. But the price of their complaint and greed was death even before they could finish chewing the quail meat. After desire has conceived, it gives birth to sin; sin, when it is full-grown, gives birth to death (Jas 1:15).

Their complaint and disbelief were conceived from something small, ordinary, and plain. We need to look into our lives to find out if complaints and resentment are buried in our habits. Is there anything else we need as we are already saved by the grace of Go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YouTube @기쁨의 언덕으로



화요일 · Tue

09

2022 August

열 두 정탐꾼

Twelve explorers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가나안의 입구 바란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은 좋은 곳이었지만 정복하기에는 매우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을 떠돌아야 했습니다.

새375장(통39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특상·민수기 14:1-10

통독·민수기 13-14장

- 1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 2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 3 어찌하여 여호와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
- 4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 5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 지라
- 6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 7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 8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 9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 10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Reading Insight

As Israelites arrived in the wilderness in Paran at the entrance to Canaan, they dispatched twelve explorers. Canaan was a good place but also had strong people to conquer. People of Israel began to complain and blame God and, as a consequence, Israel ended up wandering in the desert for 40 years.

🎵 Hymn375 Encamped Along the Hills of Light

Meditation • Numbers 14:1-10

Reading Plan • Numbers 13-14

- 1 Then all the congregation raised a loud cry, and the people wept that night.
- 2 And all the people of Israel grumbled against Moses and Aaron. The whole congregation said to them, “Would that we had died in the land of Egypt! Or would that we had died in this wilderness!
- 3 Why is the LORD bringing us into this land, to fall by the sword? Our wives and our little ones will become a prey. Would it not be better for us to go back to Egypt?”
- 4 And they said to one another, “Let us choose a leader and go back to Egypt.”
- 5 Then Moses and Aaron fell on their faces before all the assembly of the congregation of the people of Israel.
- 6 And Joshua the son of Nun and Caleb the son of Jephunneh, who were among those who had spied out the land, tore their clothes
- 7 and said to all the congregation of the people of Israel, “The land, which we passed through to spy it out, is an exceedingly good land.
- 8 If the LORD delights in us, he will bring us into this land and give it to us, a land that flows with milk and honey.
- 9 Only do not rebel against the LORD. And do not fear the people of the land, for they are bread for us. Their protection is removed from them, and the LORD is with us; do not fear them.”
- 10 Then all the congregation said to stone them with stones. But the glory of the LORD appeared at the tent of meeting to all the people of Israel.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정탐꾼들과 다르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8-9절)

Why were the reports of Joshua and Caleb different from the rest of the explorers? (vv. 8-9)

부정적인 보고를 한 정탐꾼들과 긍정적인 보고를 한 정탐꾼들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36-38절)
What was the final destiny of those explorers who presented a positive report and those who presented a negative report? (vv. 36-38)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갈보리연합감리교회, 왕태건(NJ)
그레이크스-베델연합감리교회, 장학범(NJ)
목회자를 위한 기도

능력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It Is Faith Not Capability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확인했음에도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며 밤새도록 통곡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에 전면적으로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두려워 말라고 설득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23절)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탐일의 하루를 일년씩 계산한 광야 40년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전쟁의 승패는 내가 얼마나 강한가에 있지 않습니다. 제아무리 강한 대적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승리’는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Although the report of the explorers confirmed the Promised Land flowed with milk and honey, the Israelites wept loud all night anyway, claiming that they would have been better off if they died in Egypt or in the wilderness. The disbelief of Israel reached a peak.

They faced off against all powerful and faithful God. They were even ready to stone Joshua and Caleb who tried to persuade them not to be afraid because God was with them. God declared, “No one who has treated me with contempt will ever see it” (v. 23). Counting one year for each of the 40 days of exploration, 40 years of life in the wilderness had begun.

Do you believe that God will certainly fulfill His promises to us? The win or loss of a war does not depend on how strong I am. No matter how strong our enemy may be, we can win without doubt if God is with us. If God is pleased with us, we can definitely enter the Promised Land. “Winning” is not a matter of capability. It is a matter of faith.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수요일 · Wed

10

2022 August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The land that
I will give you to live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와 반역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히 하십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드릴 제물과 예물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십니다.

🎵 새251장(통137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특상·민수기 15:1-10

통독·민수기 15장

-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 3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 4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십분의 일에 기름 사분의 일 힌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 5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사분의 일 힌을 준비할 것이요
- 6 숫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십분의 이에 기름 삼분의 일 힌을 섞어 준비하고
- 7 전제로 포도주 삼분의 일 힌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 8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 9 소제로 고운 가루 십분의 삼 에바에 기름 반 힌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 10 전제로 포도주 반 힌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순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남부뉴저지한인연합감리교회, 박태열(NJ)
뉴그레이스교회, 전영철(NJ)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유효한 약속 The Promise Still Valid

출애굽 1세대는 거듭해서 죄를 짓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신 은혜로 용서하시고 땅에 대한 약속이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사람들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15장의 제사법들은 다음 세대가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위해서는 광야에서는 쉽게 구할 수 없는 고운 가루, 기름, 포도주와 희생 제물 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살게 할 땅에는 이스라엘이 드릴 충분한 제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 갱신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도 같은 율례, 같은 법도, 같은 규례'가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역사는 언어와 민족과 문화와 국경의 제한이 없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곳에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The first-generation Israelites of the Exodus repeatedly sinned and failed. But God forgave them with abundant grace and reassured them that His promise of the Promised Land was still valid. Though people may fail, God's promise does not change.

The laws of worship in Chapter 15 assumed that the next generation of Israelites would settle in Canaan. For worship, Israelites need fine flours, oil, wine, and animals sacrificed that they could not get easily in the wilderness. But those offerings would be readily available to Israelites in the land that God prepared for them because in the land that God prepared for them, milk and honey would flow.

However, the promise of God renewed was not limited just to the Israelites. The "same rules, the same laws, and the same regulations" applied to the aliens living among the Israelites. The grace of God and the salvation by God applied, without any limitation, to all languages, races, cultures, and nations. The gospel is available to all nations where holy nations and royal priests are establishe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YouTube @기쁨의 언덕으로



목요일 · Thu

11

2022 August

고라 일당의 반역

Rebellion of Korah
and his conspirators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다시 한 번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기록됩니다. 레위 지파의 고라와 르우벤 지파의 다담과 아비람이 족장 250명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킵니다. 모세와 아론의 중보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크게 벌하십니다.

🎵 새597장(통378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특상 · 민수기 16:20-35

풍독 · 민수기 16장

- 20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 21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 22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며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며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 2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 24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 25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 26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 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 27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 28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 29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 30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 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 31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 32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 33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 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 34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 35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이백오십 명을 불살랐더라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뉴저지연합교회, 고한승(NJ)
리빙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 이정애(NJ)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반역의 결과 The Consequence of the Rebellion

고라의 불만은 ‘나도 모세와 아론처럼 레위 사람이데 어쩌서 너희만 특별한 일을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고라는 모세와 아론이 아닌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에 대항한 것입니다. 게다가 고라 일당은 250명의 지휘관과 뜻을 모으고 당을 지어 모세와 아론을 공격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생각이 같다고 해서 그 생각이 늘 하나님의 뜻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통해 40년간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고라 일당처럼 나의 가진 조건이나 실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려 해서 안됩니다. 당을 짓고 무리를 지어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 공동체를 어렵게 해서 안됩니다. 고라 일당과 250명의 지휘관은 땅이 갈라지고 여호와의 불이 나와 순식간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공동체의 각 부분은 맡겨진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Korah's discontentment was "I belong to the Levites like Moses and Aaron, but then, how come you two are so special." It was God who had chosen Moses and Aaron. Therefore, Korah was rebelling against the authority and the rule of God, not against Moses and Aaron. Furthermore, Korah and his group gathered and banded together 250 community leaders and attacked Moses and Aaron. Just because a larger group of people had the same idea, that does not mean their idea is the same as God's will. God spoke through one person Moses for 40 years and led Israel.

We should not try to do God's work solely with our own personal strength and condition like Korah and his group. We should not band together to form a group to steamroll our own will to oppose the will of God, thus harming our faith community. Korah and his group of 250 community leaders were annihilated by fire sent by God and buried alive when the earth opened up.

Each part of our faith community has its own role and responsibility. What is our role called by God? I hope and pray that today will be a day of obedience to God and a day to do the will of God even though it may be something small.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금요일 · Fri

12

2022 August

아론의 싹 난 지팡이

The budding of
Aaron's staff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고라의 반역 이후, 하나님은 죽은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아론의 대제사장직의 정당성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어 18장에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주십니다.

새325장(통36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특상·민수기 17:1-13

통독·민수기 17-18장

-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 2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열둘을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 3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 4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 5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 6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열둘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 7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 8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 9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 10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 11 모세가 곧 그 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 12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 13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린허스트 영광한인교회, 임희영(NJ)
만모스은혜연합감리교회, 정호석(NJ)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 The Staff of the Chosen One

열두 지팡이가 모두 한자리에 있었고, 같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확연히 나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을 틔우심으로 아론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제사장임을 친히 확증해 주셨습니다. 어떤 지팡이에서 싹이 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살리시기로 결정한 자의 지팡이에 서만 움이 돋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팡이에 싹을 틔우기 위해 아론이 한 일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초월적으로 역사하신 일입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날 것이라 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음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로 결정하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삼으시려고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은 가지에서 움이 트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The twelve staffs were placed together in the same place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result was completely different. When only Aaron’s staff buds, the Lord shows everyone that Aaron is the Lord’s chosen priest. How can a staff sprout to life? This is possible only when the Lord infuses it with life, allowing it to sprout, bud, blossom, and bear fruit.

The staff of Aaron is a symbol of the Lord’s sovereignty and grace. Aaron did nothing to make his staff bud. The budding of Aaron’s staff was a supernatural work done solely by the Lord. The Lord said, “The staff belonging to the man I choose will sprout” (v. 5). Similarly, the only reason that we can have a new life and live as God’s holy people even though we deserve to die is because the Lord chose to save us from our sins. The Lord chose us to make us priests in God’s kingdom. Isn’t this even more remarkable than having a dead branch sprout with lif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YouTube @기쁨의 언덕으로



토요일 · Sat

13

2022 August

붉은 암송아지

Red heifer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시체를 본 사람들이 정결케 되는 방법을 허락해 주십니다.

🎵 새264장(통198장) 정결하게 하는 샘이

독상·민수기 19:1-10

풍독·민수기 19장

- 1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 2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메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로 끌어오게 하고
- 3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 4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일곱 번 뿌리고
- 5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가 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 6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 7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 8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 9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들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 10 암송아지의 재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Reading Insight

Many people died all at once as a result of disobedience and rebellion. The Lord provides a way for the people who were exposed to the dead to be cleansed.

🎵 Hymn264 When I Saw the Cleansing Fountain

Meditation • Numbers 19:1–10

Reading Plan • Numbers 19

- 1 Now the LORD spoke to Moses and to Aaron, saying,
- 2 “This is the statute of the law that the LORD has commanded: Tell the people of Israel to bring you a red heifer without defect, in which there is no blemish, and on which a yoke has never come.
- 3 And you shall give it to Eleazar the priest, and it shall be taken outside the camp and slaughtered before him.
- 4 And Eleazar the priest shall take some of its blood with his finger, and sprinkle some of its blood toward the front of the tent of meeting seven times.
- 5 And the heifer shall be burned in his sight. Its skin, its flesh, and its blood, with its dung, shall be burned.
- 6 And the priest shall take cedarwood and hyssop and scarlet yarn, and throw them into the fire burning the heifer.
- 7 Then the priest shall wash his clothes and bathe his body in water, and afterward he may come into the camp. But the priest shall be unclean until evening.
- 8 The one who burns the heifer shall wash his clothes in water and bathe his body in water and shall be unclean until evening.
- 9 And a man who is clean shall gather up the ashes of the heifer and deposit them outside the camp in a clean place. And they shall be kept for the water for impurity for the congregation of the people of Israel; it is a sin offering.
- 10 And the one who gathers the ashes of the heifer shall wash his clothes and be unclean until evening. And this shall be a perpetual statute for the people of Israel, and for the stranger who sojourns among them.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젓물 제조에 사용될 암송아지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2절)

What is the condition of the heifer that is to be used in the making of the cleansing water? (v. 2)

암송아지를 진영 밖에서 잡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

Why is the heifer slaughtered outside the camp? (v. 3)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모리스타운한인교회, 지동규(NJ)
베다니한인연합감리교회, 백승린(NJ)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정결케 하시는 은혜 The Cleansing Grace

고라 일당의 반역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인 대민족이 광야를 이동하는 동안 죽음은 무리 어딘가에서 매일 일어났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많은 정복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시체를 만지는 일도 비밀비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원하셨습니다.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자들이 다시 진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흠이 없고 멍에를 맨 적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재를 늘 가지고 다니며 시체를 만지거나 부정한 일을 했을 때, 재를 물에 타서 그 물을 몸에 뿌림으로 부정을 씻었습니다. 이 재는 이스라엘 자손만이 아닌 외국인들에게도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늘 부정함이 존재합니다. 부정한 자는 정결하게 하기 위해 속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대제사장 되시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속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가장 부정한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영원한 속죄제가 되어주셨습니다.

Many died when Korah and his followers rebelled against God. Also, as a nation of more than six hundred thousand (counting only adult men) moved through the wilderness, there must have been death almost on a daily basis. Additionally, the people of Israel had to fight many battles with foreign tribes and nations. So, it was probably not uncommon for people to come in contact with corpses. But God wanted the people of Israel to be pure and holy. For this reason, God provided a way for those who became unclean through coming in contact with a corpse to be cleansed and be able to return to the camp by preparing ashes of a red heifer that was without defect or blemish and had never been under a yoke.

Whenever the people of Israel became unclean by coming in contact with a corpse or for other reasons, they purified themselves by mixing the ash with water and sprinkling the water on themselves. This ash was used not only for the people of Israel but also for the foreigners residing among them.

There are also things in our life that make us unclean and those who become unclean must be cleansed to be pure again. We can be cleansed through Jesus Christ who is our High Priest and who achieved forgiveness of our sins through the shedding of his blood. Jesus is the one who came into our lives that are stained by sin to purify us and became the purifying ash once and for all.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AUGUST

14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

제 목
T i t l e

[Blank area for Title]

성경 본문
S c r i p t u r e

[Blank area for Scripture]

주요 내용
O u t l i n e

[Blank area for Outline]

하나님의
음 성
G o d ' s V o i c e

[Blank area for God's Voic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믿음으로 사는 삶

박광배 목사(달라스페어뷰교회, 구 달라스제일연합감리교회TX)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번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저는 2021년 3월 3일 폐 전문의로부터 ‘폐 조직 검사’ 결과가 3기를 훨씬 넘긴 폐암이라는 통고를 받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 생각들이 머리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홀로 화장실에 있는데, 제 마음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믿음에 대해서 설교했지만,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설교하라.” 그날 밤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입니까? 저에게 가르쳐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까지 가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는 믿음이었습니다. 200만 명이 광야를 통과할 때, 가야 할 길과 먹을 것, 모든 것이 그저 막막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모세, 구름 기둥과 불기둥, 만나, 바위에서 나는 생수, 홍해와 요단 강의 기적 등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 주셨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내가 더욱 하나님을 믿고, 내일에 대한 염려 대신, 매일매일 감사하며, 매순간 연약해지려는 마음을 기도로 채워, 주님과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달라스에서 종양 의사와 연결이 잘되지 않을 때, 휴스틴의 병원으로 인도해 주셨고, 무료로 있을 숙소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병원 방문 후 3주 뒤에는 나의 암을 가장 적절하게 치료할 약을 만나게 하시고, 한 달 뒤부터 만나를 먹듯 아침마다 한알씩 먹게 하셨습니다.

1. 그 후 잦은 기침이 멈추었고 몸의 컨디션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2. 연회에서는 7월부터 Medical Leave를 주었고, 교회에서는 때맞추어 안식년을 주어, 1년 동안 몸을 치료하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3. 5월에는 아들의 결혼식 설교를 했고, 10월부터는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하게 하셨습니다.
4. 이 기간 중에 나의 지친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습니다.
5. 그동안의 목회를 되돌아보고, 반성과 회개 및 새로운 목회의 꿈을 갖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암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또한 완치 판정을 받았어도, 언제 재발과 전이가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시각을 바꾸고 나를 바꾸면,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결국 모두 죽습니다. 죽음처럼 공평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인간은 모두 시한부의 삶을 살지만 잊고 살 뿐입니다. 암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알게 합니다. 성공이 아닌 은혜의 삶, 성령의 전인 자신의 몸을 잘 돌보는 삶, 미래만을 바라보지 않고 오늘 지금을 사는 삶,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언제 위기가 찾아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이 와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위기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가 더욱 성숙하고 겸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시지만, 때로는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매일 감사하고, 예수를 전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 8:28)

월요일 · Mon

15

2022 August

므리바 물 사건

The Meribah incident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모세의 누이이자 동역자인 미리암과 형이자 대제사장인 아론이 광야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마실 물이 없음에 백성들이 다시 원망하며 모세와 아론을 비난합니다. 모세와 아론마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드러냅니다.

🎵 새549장(통431장) 내 주여 뜻대로

묵상 · 민수기 20:1-13

통독 · 민수기 20장

- 1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으며 거기에 장사되니라
- 2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 3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 4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 5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 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 6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 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 8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 9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 10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 11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 12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 13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므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아콜라연합감리교회, 안명훈(NJ)
아펜젤라기쁨내리연합감리교회, 조민호(NJ)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Why Moses Could Not Enter Canaan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신은 지독하기까지 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참으로 한결같습니다. 마실 물이 부족해지자 다시 불평을 시작합니다. 심지어 “고라 일당이 죽임을 당했을 때 차라리 같이 죽었더라면 좋을 뻔 하였다”(3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긋지긋한 원망과 불평이 반복됨에 이 말을 들은 모세가 화가 나 바위를 내리치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히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모세는 이 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12절).

이스라엘의 긴 여정을 이끌어온 모세이기에 하나님도 한 번쯤은 용서해 주실 법도 한데, 오히려 하나님은 더욱 엄격한 잣대를 사용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자기의 혈기를 드러냄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The rebelliousness and distrust of the Israelites were extreme to say the least. This continued for 40 years while they were in the wilderness. When the drinking water ran out, they started to complain again. They even said, “If only we had died when our brothers fell dead before the Lord,” referring to the Korah incident(20:3). Considering the constant bickering and blame that Moses received from the people he was trying to help and lead, we can understand why Moses struck the rock. However, the Lord demands absolute and full obedience. Because of this incident, Moses was forbidden to enter the Promised Land. Moses failed to honor the Lord as holy (20:12).

Considering all that Moses did to lead the people through a long journey, the Lord could have forgiven Moses this one time. Instead, the Lord was very strict with Moses. As the one chosen by God to lead God’s people, Moses was supposed to honor the Lord as holy. But he sinned against God by lashing out in anger. No matter the situation, the Lord expects full obedience. As God’s holy nation and people like the High Priest, the Lord calls us to proclaim God’s holines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YouTube @기쁨의 언덕으로



화요일 · Tue

16

2022 August

반복되는 죄

Sin that continues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이스라엘은 첫 점령시도에서(민 14:39-45) 불순종으로 패했지만,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본격적인 정복 전쟁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차츰 요단 동편을 점령합니다.

🎵 새270장(통214장) 변창는 주님의 사랑과

독상·민수기 21:1-9

통독·민수기 21장

1 네첩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2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3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4 백성이 호르 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5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6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7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Reading Insight

Even though Israel was defeated by their enemies at the first city (Num 14:39-45), they experienced victory in the battle that the Lord approved. With this victory, the battles to conquer the Promised Land officially began for Israel. Israel begins its gradual conquest of the lands east of the Jordan.

🎵 Hymn270 Let Us Sing of His Love

Meditation • Numbers 21:1-9

Reading Plan • Numbers 21

1 When the Canaanite, the king of Arad, who lived in the Negeb, heard that Israel was coming by the way of Atharim, he fought against Israel, and took some of them captive.

2 And Israel vowed a vow to the LORD and said, “If you will indeed give this people into my hand, then I will devote their cities to destruction.”

3 And the LORD heeded the voice of Israel and gave over the Canaanites, and they devoted them and their cities to destruction. So the name of the place was called Hormah.

4 From Mount Hor they set out by the way to the Red Sea, to go around the land of Edom. And the people became impatient on the way.

5 And the people spoke against God and against Moses, “Why have you brought us up out of Egypt to die in the wilderness? For there is no food and no water, and we loathe this worthless food.”

6 Then the LORD sent fiery serpents among the people, and they bit the people, so that many people of Israel died.

7 And the people came to Moses and said, “We have sinned, for we have spoken against the LORD and against you. Pray to the LORD, that he take away the serpents from us.” So Moses prayed for the people.

8 And the LORD said to Moses, “Make a fiery serpent and set it on a pole, and everyone who is bitten, when he sees it, shall live.”

9 So Moses made a bronze serpent and set it on a pole. And if a serpent bit anyone, he would look at the bronze serpent and live.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호르마는 어떤 곳입니까?

(민 14:39-45, 21:3)

What kind of place is Hormah?

(Num 14:39-45, 21:3)

불뱀 사건의 발단이 된 이스라엘의 원망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4-5절)

What was Israel's resentment that led to the venomous snake incident? (vv. 4-5)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믿음의 순종 The obedience of faith

바쁘고 급한 일이 있는데 예상하지 못한 공사로 인해 우회해야 할 때는 마음이 조금해지고 '왜 하필 오늘, 여기를 막았느냐'며 불평의 말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 불평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불평의 화살은 엉뚱한 곳을 향합니다. 바로 40년간 일용한 양식이 되어준 만나가 싫다는 것입니다. 만나를 가리켜 "하찮은 음식"이라고까지 합니다.

광야 길 내내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감사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베풀어 하찮은 것입니까? 하나님은 불평을 보내 저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을 내십니다. 믿음으로 늦밤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이들만이 나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이 아닌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아가 십자가에 친히 달리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요 3장). 불평과 불순종이 아닌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의 순종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When we are rushing somewhere and run into a detour on the road due to unexpected construction, it is easy to feel frustrated and complain. Similarly, the Israelites began to complain. But their complaint was unjustified, if not downright wrong. They complained about eating manna that had sustained them through 40 years of their journey. They even said, "We detest this miserable food" (21:5).

In doing so, they not only took for granted the care and guidance that God provided for them through their journey in the wilderness, but also showed contempt for God's grace in their lives. Because of their sins, God judged them by sending venomous snakes into their midst. But God of Israel is also God of love and mercy. So, God saves them from venomous snakes. Whoever looked at the bronze snake with faith and obedience was saved. Jesus came to this world not to judge but to save. By being nailed to the cross, Jesus provided salvation to the world(John 3). It is time to put away bickering and disobedience and look to Jesus on the cross. Those who look at the cross with faith and obedience will experience salvation. As God's holy nation and people like the High Priest, the Lord calls us to proclaim God's holiness.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제자교회, 이영기(NJ)
주님의 은혜교회, 최준호(NJ)
목회자를 위한 기도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수요일 · Wed

17

2022 August

저주를 축복으로

Turning curse
into blessing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 모압 평야에 이릅니다.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모압의 왕은 주술사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하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변합니다.

🎵 새325장(통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특상·민수기 22:7-20

통독·민수기 20장

7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람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8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9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10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람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11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12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13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람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람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15 발람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16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람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도 거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17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18 발람이 발람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람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탈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19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20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Reading Insight

They have arrived in the plains of Moab, east of the Jordan. The King of Moab who fears Israel summons Balaam to bring a curse upon them. However, the Lord intervenes, turning the curse into a blessing.

🎵 Hymn 325 Nearer, Still Nearer

Meditation • Numbers 22:7-20

Reading Plan • Numbers 22

7 So the elders of Moab and the elders of Midian departed with the fees for divination in their hand. And they came to Balaam and gave him Balak's message.

8 And he said to them, "Lodge here tonight, and I will bring back word to you, as the LORD speaks to me." So the princes of Moab stayed with Balaam.

9 And God came to Balaam and said, "Who are these men with you?"

10 And Balaam said to God, "Balak the son of Zippor, king of Moab, has sent to me, saying,

11 'Behold, a people has come out of Egypt, and it covers the face of the earth. Now come, curse them for me. Perhaps I shall be able to fight against them and drive them out.'"

12 God said to Balaam, "You shall not go with them. You shall not curse the people, for they are blessed."

13 So Balaam rose in the morning and said to the princes of Balak, "Go to your own land, for the LORD has refused to let me go with you."

14 So the princes of Moab rose and went to Balak and said, "Balaam refuses to come with us."

15 Once again Balak sent princes, more in number and more honorable than these.

16 And they came to Balaam and said to him, "Thus says Balak the son of Zippor: 'Let nothing hinder you from coming to me,

17 for I will surely do you great honor, and whatever you say to me I will do. Come, curse this people for me.'"

18 But Balaam answered and said to the servants of Balak, "Though Balak were to give me his house full of silver and gold, I could not go beyond the command of the LORD my God to do less or more.

19 So you, too, please stay here tonight, that I may know what more the LORD will say to me."

20 And God came to Balaam at night and said to him, "If the men have come to call you, rise, go with them; but only do what I tell you."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3절)

Why did the King of Moab fear the Israelites? (v. 23)

발람이 모압 왕의 요청에 응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7, 15, 17-18절)

Why did Balaam grant the request of the King of Moab? (vv. 7, 15, 17-18)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순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패를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체리힐제일교회, 김일영(NJ)
코너스톤교회, 정희섭(NJ)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복 받기로 결정된 민족

The People Who Are Destined to Be Blessed

이스라엘은 아모리 땅을 점령하고 이제 모압 평지로 이동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에 압도된 모압 왕은 아모리에 패했던 전적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의 전진이 더욱 두려웠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모압 왕 발락은 당대 유명했던 술사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서에서부터 줄곧 이스라엘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하거나 망칠 수 있는 사람이나 술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하는 나귀를 통해 축복과 저주가 하나님의 권한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복 주시기로 정하셨기에 이를 막을 사람의 방법은 없습니다. 그들은 복받은 자들입니다(12절). 모세는 죽음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와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신 33:29).

The people of Israel traveled to the plains of Moab after conquering the land of the Amorites. The King of Moab dreaded the advancement of the Israelites because they were outnumbered and also because Moab was once defeated by the Amorites whom the Israelites were able to defeat. Terrified of the Israelites, Balak, King of Moab, summons Balaam and asks Balaam to bring a curse upon Israel. But this doesn't happen as Balak wanted because God was watching over Israel.

God promised to bless Israel from the time of the Book of Genesis. There is no one who can change or interfere with God's plan to bless Israel. It is God who changed a curse into a blessing for Israel. Even through the mouth of a donkey, God clearly showed that God is sovereign over all things, even over curses and blessings. When God decides to bless Israel, no one or no scheme can stop or change that. The Israelites are blessed people (v. 12). Moses said as he neared death, “Blessed are you, Israel! Who is like you, a people saved by the LORD? He is your shield and helper and your glorious sword. Your enemies will cower before you, and you will tread on their heights” (Deut 33:29).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YouTube @기쁨의 언덕으로



목요일 · Thu

18

2022 August

발람의 축복 신탁

Balaam's
blessing oracle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23장과 24장은 발람의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신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축복을 약속 받은 백성임을 네 번의 신탁을 통해 확인시켜 주십니다.

♪ 새429장(통48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우리에게 향하신

특상·민수기 23:13-26

통독·민수기 23-24장

13 발람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14 소뿔 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일곱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숫양을 드리니

15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거기서 여호와를 만나뵈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16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시라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17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18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불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19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20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21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22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23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 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24 이 백성이 암사자 같이 일어나고 수사자 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25 발람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26 발람이 발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알버커키연함감리교회, 김기천(NM)
겨자씨 한알 교회, 이기용(NV)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God Is Not a Human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장소를 바꾸어도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가 많아서 저주가 통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변치 않는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순하게 저지른 반역과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마침내 용서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들소와 같이 강하게 하셨으며 어떤 점술과 복술도 이스라엘을 해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발람은 이스라엘이 더욱 강성해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어딘가에서 자신들을 향한 저주의 노력이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팔이 저들을 품어 끝끝내 보호해 주셨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 만이 세상의 저주와 유혹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Balaam could not curse Israel. He tried changing his location, but to no avail. It was not because the Israelites were so numerous that his curse did not work. It was not because they had a mighty army. It is because they are the people God loves and the people God has chosen. It is due to God's absolute love and unchanging covenant.

God endured the many rebellions and transgressions that Israel had committed and finally forgave them. He brought them out of Egypt, made them as strong as the buffalo, and allowed no divination to harm Israel. Rather, Balaam prophesied that Israel would become more prosperous.

On the other hand, Israel received a tremendous blessing from God without even knowing there had been an effort to curse them. God's great arm embraced them and protected them until the end. Remembering the God who delivers us from our sins and knows our weaknesses, faith in His promises is the only way to overcome the curses and temptations of the worl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금요일 · Fri

19

2022 August

바알브올 사건

Baal of Peor incident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잇딤에 머물던 이스라엘이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을 섬김으로 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염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어가지만 하나님은 비느하스와 다시 언약을 체결하시고, 모세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십니다.

🎵 새322장(통357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특상·민수기 25:1-13

통독·민수기 25장

- 1 이스라엘이 잇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와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 2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 3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 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 5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브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 6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 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 7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 8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염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 9 그 염병으로 죽은 자가 이만 사천 명이었더라
- 1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 11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 12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 13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머물지 말아야 할 자리 Not a Place to Stay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고(22-24장)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셨지만, 이스라엘은 발람의 꾀(민 31:16)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음행은 곧 우상숭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광야 행군을 마친 이스라엘에게 싯딤은 머물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해를 가릴 그늘이 있고 물이 있고 나무가 있었습니다. 가나안인의 제사는 화려하고 자극적이었습니다. 여인들의 유혹은 달콤하고 제단의 음식들은 태어나서 처음 맛보는 좋은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눈과 귀와 마음을 빼앗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볼 수 없는 다채로운 광경에 그야말로 눈이 돌아가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머물지 말아야 할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저주와 핍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복을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광야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God turned curses into blessings (Chapters 22-24) and showed unchanging love, but Israel helplessly followed Balaam's advice (31:16). Fornication soon led to idolatry.

Shittim was where Israel wanted to stay after the wilderness march. There was shade from the sun, there was water, and there were trees. The Canaanite sacrifice was splendid and provocative. The temptations of women were sweet, and the food on the altar may have been the first good thing they had ever tasted. It would have been enough to win the eyes, ears, and hearts of Israel. The colorful sights that could not be seen in the wilderness must have been enough to attract their attention. But it was a place not to stay. They should have not bowed down to any god other than God.

Curses and persecution did not bring down God's people. Israel had fallen on its own. Israel broke their covenant with God and rejected the blessings God had promised them. Are you choosing the pleasures of the world rather than walking in the wilderness with God?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패를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라스베이거스한인연합감리교회, 라온진(NV)
그리스도한인연합감리교회, 정창훈(NY)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YouTube @기쁨의 언덕으로



토요일 · Sat

20

2022 August

두 번째 인구조사

The second census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가나안 정복 직전 다시 한번 군대를 재정비하고, 가나안 땅에서의 땅 분배를 위한 두 번째 인구조사가 시작됩니다.

♪ 새391장(통446장) 오 놀라운 구세주

특상 · 민수기 26:51-65

통독 · 민수기 26장

51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육십만 천칠백삼십 명이었더라

5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53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54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55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56 그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57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므라리에게서 난 므라리 종족이며

58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랍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59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60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낳더니

61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드리다가 죽었더라

62 일 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이만 삼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63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러고 맞은편 요단 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64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65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패를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뉴드림교회, 김남석(NY)
뉴욕감리교회, 강원근(NY)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수를 세는 이유 Reasons for Counting

‘민수기’는 문자 그대로 백성의 수를 센 기록입니다. 또한 민수기의 또 다른 이름은 ‘광야에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와 신실하심을 기록한 책입니다. 광야 40년을 지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시 한번 장정의 수를 셉니다.

26장에 기록된 백성의 수 중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습니다(민 14:26-35, 26:64).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고, 광야 길에 죽음이 빈번하게 있었음에도 계수된 인원의 수는 첫 번째 인구조사에 비해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계수된 이스라엘의 수는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마침내 들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하거나 중단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넘어지거나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언약 백성의 삶을 살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The Book of Numbers is literally a record of counting the people. Another name for Numbers is “in the wildernesses.” This book is a record of God’s grace and faithfulness to the Israelites while they were in the wilderness. After 40 years in the wilderness, Israel followed God’s command to count the elders once again.

Among the number of people recorded in Chapter 26, not one of the children of Israel who were counted in the wilderness of Sinai was included (Num 26:64; 14:26-35). Many people were killed because of disobedience, and the number of people counted was not much different from that of the first census. The number of Israelites counted indicates God’s will to deliver them out of Egypt and finally enter the Promised Land through the wilderness. Furthermore, it clearly shows that God’s promises did not fail or cease.

We often stumble and fail but God makes no mistakes. He will surely lead Israel to Canaan and help them live the life of the covenant people ther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AUGUST

21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

제 목
T i t l e

[Empty rounded rectangular box for Title]

성경 본문
S c r i p t u r e

[Empty rounded rectangular box for Scripture]

주요 내용
O u t l i n e

[Empty rounded rectangular box for Outline]

하나님의
음 성
G o d ' s V o i c e

[Empty rounded rectangular box for God's Voic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

박성환 목사(벨리연합감리교회 CA)

모세가 기록한 다섯 권의 책 중, 민수기는 히브리어로 “베미드바르”로 불립니다.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라는 뜻이지만, “베미드바르”는 ‘광야에서’(in the wilderness)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의 의미처럼,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는 여정 중 광야에서 겪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인간에게 적합한 장소가 아닙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과 음식을 구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낮의 열기와 밤의 냉기도 인간에게 호의적인 환경은 아닙니다.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여야 하는 혹독한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의 땅으로 향하던 중 수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어쩌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차라리 나을 정도로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도처에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모든 것이 적대적인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광야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였고, 백성들이 굶주릴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한낮의 뜨거운 태양을 구름기둥으로 가리우시며, 한밤의 냉기를 불기둥으로 데워 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가로막는 수많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적대적인 환경이었지만, 광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

이었습니다. 시련과 연단의 장소인 동시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광야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이 세상은 호의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일들이 밤낮으로 벌어지며,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권세 사이에서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벌여야 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하고 한탄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인생에도 함께 하시고 보호하고 계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민수기를 읽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민수기 1장에 따르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의 수가 총 603,5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6장을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모압 땅에서 다시 한번 계수를 하게 되는데 그 수가 총 601,73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처에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광야에서 수십 년을 지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존 시키신 것입니다. 그들의 불순종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돌보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광야는 시련과 고난의 장소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의 장소가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날마다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월요일 • Mon

22

2022 August

새로운 세대

The new generatio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슬로브핫의 딸들의 청원과 이를 들으시고 새로운 법을 제정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1-11절)가 기록됩니다. 죽음이 다가온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 새로운 지도자를 간구합니다(12-23절).

새546장(통399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독상 • 민수기 27:1-11

풍독 • 민수기 27장

1 요셉의 아들 므낫세 증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2 그들이 회막 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앞에 서서 이르되

3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4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증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5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7 슬로브핫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8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9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10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11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뉴욕그레잇네교회, 양만석(NY)

뉴욕남산교회, 이요섭(NY)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분주하던 마르다에 반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으리라”(눅 10:42)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슬로브핫의 딸들은 당당하게 자기의 기업을 요구함으로써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들들에게만 분배될 뻔한 땅에 대한 이들의 요구는 단순히 재물에 대한 탐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축복, 분깃에 대한 거룩한 청원이었습니다.

약속하신 그 땅만 바라보며 40년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되고, 기업을 잇지 못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다섯 여성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모세와 회중 앞에 자기들의 권리를 당당히 요구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주시기로 한 하나님의 뜻을 빼앗지 말라는 요청입니다. 본 적도 없는 기업을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고, 사모하며 지켜내는 용기 있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지켜내야 합니다.

Contrary to Martha, who was busy, Jesus said to Mary who sat at Jesus' feet and listened to his words, "Mary has chosen what is better, and it will not be taken away from her" (Luke 10:42). In this way, the daughters of Zelophehad were not deprived of good things by claiming their inheritance proudly. Their demand for land that would have been given only to sons was not simply greed for riches. It was a holy petition for the blessing and portion that God had promised to give.

They walked and walked for 40 years, hoping only for the Promised Land. However, because they do not have a son, they cannot enjoy the blessings of the land that God has given them. Because daughters cannot inherit the inheritance, they cannot belong to the community of the kingdom of God. These five women proudly claimed their rights before Moses and the congregation with strong faith in God's promises. It is a request not to usurp the portion of God given to their father. It was an act of courageous faith to regard, long for, and protect the land that had never been seen before. We must long for the grace of God that has been given to us more and protect it.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YouTube @기쁨의 언덕으로



화요일 · Tue

23

2022 August

매일, 매주, 매월 드리는 예배

Daily, weekly,
monthly
worship services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드려야 하는 제사들에 대해 언급합니다. 매일 드리는 상번제, 매주 지켜야 할 안식일 제물, 매월 첫날을 드리는 초하루 제물과 유월절과 칠칠절 규례를 알려주십니다.

♪ 새5장(통66장) 지난 밤에 보호하사

특상 · 민수기 28:1-15

통독 · 민수기 28장

-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 3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일 년 되고 흠 없는 숫양을 매일 두 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 4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 질 때에 드릴 것이요
- 5 또 고운 가루 십분의 일 예바에 빵아 낸 기름 사분의 일 힌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 6 이는 시내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 7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사분의 일 힌을 드리되 기록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 8 해 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 9 안식일에는 일 년 되고 흠 없는 숫양 두 마리와 고운 가루 십분의 이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 10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 11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되고 흠 없는 숫양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 12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십분의 삼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숫양 한 마리에는 고운 가루 십분의 이에 기름 섞은 소제와
- 13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십분의 일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 14 그 전제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포도주 반 힌이요 숫양 한 마리에 삼분의 일 힌이요 어린 양 한 마리에 사분의 일 힌이니 이는 일 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 15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뉴욕만백성한인연합감리교회, 이종범(NY)

뉴욕반석교회, 김동규(NY)

목회자를 위한 기도

예배하는 언약 공동체 Covenant Community for Worship

약속의 땅은 좋은 땅이었지만 무인도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정착하고 있던 가나안인들과 그들의 문화와 이방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이 새로운 질서와 규례, 유일하신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뤄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유지함으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셨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철저히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방 문화에 동화되거나 이방신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매일, 매주, 매월 하나님을 기억하며 제물을 드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야말로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그리고 일년에 한 번 특별한 절기까지 예배를 드리고 또 드려야 합니다. 아침저녁으로 동물을 잡아야 하고, 매주 더 많이, 매달 더 많은 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십니다. 오직 예배만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The Promised Land was a good land, but it was not uninhabited. Canaanites had already settled there with their culture and foreign gods. In the midst of this, Israel will enter with a new order, ordinances, and faith in the one God. It was God's dream that God's holy kingdom would be fully established in the Promised Land.

God wanted Israel to fulfill the mission of the kingdom of priests and the holy people by maintaining a permanent relationship with God through daily worship. Their relationship with God did not end just because Israel entered the Promised Land. If Israel does not thoroughly worship and does not rely on God, it will be assimilated into a foreign culture or kneel to a foreign god. That is why God required them to offer sacrifices in memory of God every day, every week, and every month. Literally all day, all week, all month, and once a year, they had to worship and offer again and again until the time of special festivals. God asked them to slaughter animals in the morning and evening and to offer more sacrifices to God each week and a larger amount each month. Only worship can keep our relationship with God from being severe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수요일 · Wed

24

2022 August

일곱 번째 달의 절기들

Feasts of the seventh lunar month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제사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나팔절(1-6절), 대속죄제(7-11절), 초막절(12-38절), 서원제와 낙헌제(39-40절).

새438장(통485장) 내 영혼이 은총입어

특상·민수기 29:12-22

통독·민수기 29장

12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레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13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열세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숫양 열네 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14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열세 마리에는 각기 십분의 삼이요 숫양 두 마리에는 각기 십분의 이요

15 어린 양 열네 마리에는 각기 십분의 일을 드릴 것이며

16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17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열두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되고 흠 없는 숫양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18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19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20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열한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되고 흠 없는 숫양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21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22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Reading Insight

God wants Israel who entered Canaan not to forget their relationship with God. Therefore, God gives specific details about the various methods of offering sacrifices to Israel: Feast of Trumpets (vv. 1-6), sin offering (vv. 7-11), Feast of Tabernacles (vv. 12-38), and vow and freewill offerings (vv. 39-40).

🎵 Hymn438 Since Christ my soul from sin set free

Meditation • Numbers 29:12-22

Reading Plan • Numbers 29

12 “On the fifteenth day of the seventh month you shall have a holy convocation. You shall not do any ordinary work, and you shall keep a feast to the LORD seven days.

13 And you shall offer a burnt offering, a food offering, with a pleasing aroma to the LORD, thirteen bulls from the herd, two rams, fourteen male lambs a year old; they shall be without blemish;

14 and their grain offering of fine flour mixed with oil, three tenths of an ephah for each of the thirteen bulls, two tenths for each of the two rams,

15 and a tenth for each of the fourteen lambs;

16 also one male goat for a sin offering, besides the regular burnt offering, its grain offering and its drink offering.

17 “On the second day twelve bulls from the herd, two rams, fourteen male lambs a year old without blemish,

18 with the grain offering and the drink offerings for the bulls, for the rams, and for the lambs, in the prescribed quantities;

19 also one male goat for a sin offering, besides the regular burnt offering and its grain offering, and their drink offerings.

20 “On the third day eleven bulls, two rams, fourteen male lambs a year old without blemish,

21 with the grain offering and the drink offerings for the bulls, for the rams, and for the lambs, in the prescribed quantities;

22 also one male goat for a sin offering, besides the regular burnt offering and its grain offering and its drink offering.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초막절은 며칠 동안 지켜야 합니까? (12절)

How many days should they keep the Feast of Tabernacles? (v. 12)

초막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레 23:42-43)

Why do they have to keep the Feast of Tabernacles? (Lev 23:42-43)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패를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뉴욕베델교회, 진세관(NY)
뉴욕성서교회, 김종일(NY)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기억하는 것 Remembering

이스라엘은 가장 척박한 광야에서 고생스러운 40년을 살았습니다. 불평과 불만, 탐욕과 죄악으로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죽임을 당한 고통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돌보심을 가장 극적으로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가 세워지고,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광야에서 함께 하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 2세대는 애굽에서의 노예생활이나 출애굽 당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는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세대에게 출애굽과 광야는 더욱 잊혀질 옛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에 정착할 이스라엘에게 이레 동안 초막을 지어 거주하라고 하십니다. 초막질 기간 동안 매일의 예배(상번제)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광야생활 동안 처절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던 때를 기억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매일 제물을 드리며 아무도 일하지 말라 하십니다. 광야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Israel lived in the most barren wilderness for 40 years of hardship. It was also a time of suffering, when the first generation of Exodus were killed due to complaints, dissatisfaction, greed, and sins. Paradoxically, Israel also experienced the most dramatic experience of God's presence and care in the wilderness. Now, a new generation is being raised, and Canaan is in front of them. What Israel needs to remember daily is the grace of God who was with them and provided for them in the wilderness.

In fact, the second generation of the Exodus had a sense of distance from slavery in Egypt and the amazing work of God at the time of the Exodus. For the next generation, the Exodus and the wilderness will become more forgotten stories of the past. But God tells Israel to settle in Canaan and build shelters for seven days. During the Feast of Tabernacles, daily worship (the regular burnt offering) must also be continued. This is a command to remember when they desperately and passionately sought God's help during their wilderness life. God tells them to make sacrifices every day and let no one work. We must offer sacrifices of thanks, remembering only the God who took charge of our life in the wilderness to guide u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YouTube @기쁨의 언덕으로



목요일 · Thu

25

2022 August

서원에 대한 규례

Laws concerning
VOWS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30장은 서원에 대한 규례입니다. 특별히 여성이 서원했을 경우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새213장(통348장)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특상·민수기 30:1-12

통독·민수기 30장

- 1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 2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 3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 4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 5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 6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 7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 8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 9 과부나 이혼 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 10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 11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 12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뉴욕주나목교회, 문정웅(NY)
뉴욕한인교회, 이용보(NY)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하나님과의 약속 Promise with God

하나님은 약속을 깨뜨리거나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의 시간과 다르고, 우리의 기다림이 길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하나님은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신 23:21). 서원의 기본적인 원칙은 ‘무조건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우리의 이해도에 적합한 규례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이었음을 아셨습니다. 여성이 경제력을 가지지 못한 사회에 여성들의 서원에 대한 특별한 규례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남자의 서원은 하나님께 직접적인 책임을 갖지만 여자의 서원은 남편이나 아버지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세밀하고 합리적입니다. 약속의 땅에서의 삶에 대해 철저히 이스라엘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민수기 구석구석 하나님의 섬세한 지침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God never breaks or cancels his promises. Although our time is different and our waiting is long, God's promises are always kept. God says we must keep our vows. Failure to keep a vow becomes a sin(Deut. 23:21). The basic principle of the vow is "unconditional observance."

However, God can see through our eyes and understands our situation and circumstances. He gives rules that are suitable for our living circumstances and our understanding. God knew that Israel society at that time was male-dominated and patriarchal. He allowed special rules for women's vows in a society where women did not have financial power. A man's vows are directly accountable to God, but a woman's vows can be annulled by either the husband or the father. This is very specific and reasonable. He thoroughly prepares Israel for life in the Promised Land. God's detailed instructions are amazing throughout the book of Number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금요일 · Fri

26

2022 August

미디안 전리품 분배

Distribution of
spoils extorted
from the Midianites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십니다. 미디안에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것입니다. 전쟁에는 승리했지만, 참전했던 군인들은 모두 정결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은 전리품을 나누어 갖습니다.

🎵 새353장(통391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독상·민수기 31:25-31

통독·민수기 31장

2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6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27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28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 떼의 오백분의 일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29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30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 떼나 각종 짐승 오십분의 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31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로체스터제일교회, 이진국(NY)
로체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김동기(NY)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여호와와 원수를 갚고

Carrying Out the Lord's Vengeance on Midian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엄청난 양의 전리품을 탈취했습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이 절반을 갖고, 회중이 절반을 가졌습니다. 군인들이 받은 것의 1/500을, 회중이 1/50을 여호와께 드림으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도 몫이 주어졌습니다. 단 12,000명의 군대로 미디안을 정복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희생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49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약속의 땅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던 것에 반해 새로운 세대의 이스라엘은 이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이 길 수 있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1/500을 이미 나누었음에도 군인들은 많은 양의 예물을 가지고 와 하나님께 감사와 속건을 위해 바쳤습니다. 또한 많은 양의 전리품을 나누며 장차 그들이 정복할 땅의 풍요로움을 맛보았고, 전리품을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면서 가나안의 땅과 그 소산을 기쁨으로 나누게 될 확신과 희망도 갖게 되었습니다.

After winning the war against Midian, Israel took huge amounts of booty which were divided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The soldiers in the war got half and the congregation got half. Priests and Levites were also given a share by receiving 1/500 of what the soldiers received and 1/50 of the congregation giving to Jehovah. They conquered Midian with an army of only 12,000 men. Even more surprising is the fact that not one was lost (v. 49). Without God's total intervention, this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While the first generation of Exodus was killed in the wilderness for not trusting God's promise in front of the Promised Land, the new generation of Israel did not forget that this victory came from God. It is the experience that we can overcome if God is with us. Although 1/500 had already been paid, the soldiers brought a large amount of offerings to give thanks to God and for redemption. They also shared a lot of booty and tasted the riches of the land they will conquer in the future. By sharing the spoils according to God's will, they have the confidence and hope that they will share the land of Canaan and its produce with joy.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YouTube @기쁨의 언덕으로



토요일 · Sat

27

2022 August

요단 동쪽 지파들- 갓, 르우벤

The eastern tribes
of the Jordan -
Gad, Reube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많은 가축 떼를 가진 르우벤과 갓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는 요청을 합니다. 모세는 크게 분노하지만 하나님은 두 지파가 전쟁을 참여하겠다는 조건으로 요단 동편을 그들에게 분배하십니다.

새374장(통423장) 나의 믿음 약할 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특상·민수기 32:20-32

통독·민수기 32장

20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21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22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는

23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24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25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26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 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27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28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29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30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31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32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롱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 김재현(NY)
메트로폴리탄 한인연합감리교회, 김진우(NY)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목적을 잃은 두 지파 Two Tribes That Lost Their Purpose

오늘 내가 지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것이라는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르우벤과 갓 자손의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정은 하나님이 본래 원하시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분배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묶임에서 자유케 하시고, 광야 40년을 인도하신 이유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보다 요단 동편 넓은 땅이 더 좋았습니다. 많은 가축을 키우기에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분별력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묶여 있는 민족의 결속을 깨뜨리는 요청이었습니다.

요단 동편이 제아무리 좋더라도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 본격적인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40년을 함께 걸어온 다른 열 지파는 전쟁터로 보내고 자기들은 좋은 곳에 남겠다는 그들의 말이 합당한 것입니까?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것들 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요청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멈춰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It is a big mistake to think that everything I have today is in accordance with God's will. A loving God granted the requests of Reuben and Gad tribes but their decision was not what God originally wanted. They say they don't want to be given the Promised Land. They forgot why God delivered Israel from Egypt, freed them from bondage, and led them through the wilderness for 40 years. The large land east of the Jordan appeared better than the Promised: and that God had given them because it seemed good to raise a lot of livestock. They made a request to break the solidarity of the nation because of immediate interests. They were bound by God's promises, but they lost their sense of discernment.

No matter how good the east side of the Jordan is, can it be better than the land of Canaan that God has promised? Now they have to cross the Jordan River and start a full-scale war of conquest. Are the other ten tribes, who have journeyed together for 40 years, about to understand the statement that the two tribes will remain in the good place even though the other ten tribes will go to war?

We often ask God for what we want rather than what He has promised us to give. There are times when God tells us to go, but we have to stop because of things we can see. We need to remember the heart of God who called and saved u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AUGUST

28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

제 목
T i t l e

[Blank area for Title]

성경 본문
S c r i p t u r e

[Blank area for Scripture]

주요 내용
O u t l i n e

[Blank area for Outline]

하나님의
음 성
G o d ' s V o i c e

[Blank area for God's Voic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신뢰

이대규 목사(케노사한인연합감리교회 WI)

우리가 살면서 참 속상한 경우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거나 오해를 할 때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서 참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거나 아니면 나를 잘 몰라서 선입견을 갖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되고 신뢰가 아닌 실망과 원망으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사탄이 원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사탄은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그런 오해나 잘못된 편견을 갖도록 사람과 환경을 통해 방해할 것입니다.

뉴욕리버사이드교회에서 목회하시며 콜롬비아대학에서 교수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일과 상담을 담당하셨던 헤리 포스덕 목사님에게 하루는 어떤 학생이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 학생이 상담을 시작하면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도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헤리 목사님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또 도대체 그 학생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기에 그렇게 실망하고 원망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 학생은 열심히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학생의 얘기를 다 들은 헤리 목사님

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학생이 생각하고 믿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그런 하나님은 믿지 않을 것이네.” 그리고는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편견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이 학생의 모습이 우리 모습은 아닐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너무 얇고 편향적인 면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믿고 이해하려는 일이 실망과 원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경 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이제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잊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의 오해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로 사랑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란과 어려움의 여정이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신뢰하게 되는 영적 축복의 시간이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믿음과 단련의 기간이었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 3:5-6)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어려운 시험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성경 속의 약속의 말씀과 축복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월요일 · Mon

29

2022 August

애굽에서 모압까지

From Egypt to Moab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이스라엘의 애굽-라암셋에서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경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의 모든 거민을 몰아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 새246장(통221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특상·민수기 33:1-14

통독·민수기 33장

1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2 모세가 여호와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와 노정은 이러하니라

3 그들이 첫째 달 열다섯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4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5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숙곳에 진을 치고

6 숙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7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므딕돌 앞에 진을 치고

8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9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열둘과 종려 칠십 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10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11 홍해가를 떠나 신 광야에 진을 치고

12 신 광야를 떠나

13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14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Reading Insight

It records the path of Israel from Egypt-Rameses to the plains of Moab east of the Jordan. God says they must go into Canaan and drive out all the inhabitants of the land.

🎵 Hymn 246 I've Cast My Heavy Burdens Down

Meditation • Numbers 33:1-14

Reading Plan • Numbers 33

- 1 These are the stages of the people of Israel, when they went out of the land of Egypt by their companies under the leadership of Moses and Aaron.
- 2 Moses wrote down their starting places, stage by stage, by command of the LORD, and these are their stages according to their starting places.
- 3 They set out from Rameses in the first month, on the fifteenth day of the first month. On the day after the Passover, the people of Israel went out triumphantly in the sight of all the Egyptians,
- 4 while the Egyptians were burying all their firstborn, whom the LORD had struck down among them. On their gods also the LORD executed judgments.
- 5 So the people of Israel set out from Rameses and camped at Succoth.
- 6 And they set out from Succoth and camped at Etham, which is on the edge of the wilderness.
- 7 And they set out from Etham and turned back to Pi-hahiroth, which is east of Baal-zephon, and they camped before Migdol.
- 8 And they set out from before Hahiroth and passed through the midst of the sea into the wilderness, and they went a three days' journey in the wilderness of Etham and camped at Marah.
- 9 And they set out from Marah and came to Elim; at Elim there were twelve springs of water and seventy palm trees, and they camped there.
- 10 And they set out from Elim and camped by the Red Sea.
- 11 And they set out from the Red Sea and camped in the wilderness of Sin.
- 12 And they set out from the wilderness of Sin and camped at Dophkah.
- 13 And they set out from Dophkah and camped at Alush.
- 14 And they set out from Alush and camped at Rephidim, where there was no water for the people to drink.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날은 언제 입니까? (3절)

When did Israel leave Egypt?
(v. 3)

제사장 아론은 언제 어디서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38절)

When and where did Aaron the priest die? (v. 38)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순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모닝사이드연합감리교회, 박재용(NY)
미드허드슨한인연합감리교회, 김운태(NY)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여호와와 명령대로 As the LORD Commanded

민수기를 통틀어 “여호와께서(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명령을 따라)”라는 말이 가장 많이 반복하여 언급된 말입니다. 모세의 순종이 이스라엘을 이곳까지 오게 했습니다. 모세는 광야의 여정을 여호와와 명령대로 일일이 기록했습니다(2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요단 동편까지 마흔한 번 진을 치고 떠나기를 반복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시내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비웃고 시험하기도 했습니다(시 78:18-19). 열 정탐꾼의 보고와 백성들의 불신앙으로 광야 4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라 일당은 모두 죽임을 당했고, 다시 돌아온 가데스에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 분배하게 됩니다.

좋았던 일도, 즐거웠던 일도 있었지만, 탐욕과 불순종으로 징계를 받은 곳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실패하여 넘어진 곳도 모두 기록했습니다. 모든 진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셨고, 지역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남겨진 교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지루한 기록을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평안한 길을 걸을 것인지, 불순종과 불만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인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광야 같은 우리 삶의 여정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갈 만한 곳, 기억할 만한 곳들입니다.

Throughout Numbers, “at the Lord’s command [to Moses]” is perhaps the most repeated phrase. Moses’ obedience allowed Israel to come this far. Moses recorded the journey in the wilderness one by one according to the command of the Lord (v. 2).

Israel repeatedly encamped and departed from Egypt to the east of the Jordan forty-one times. They crossed the Red Sea and received the Ten Commandments in the wilderness of Sinai. They resisted, ridiculed, and tested God (Ps 78:18-19). The 40 years of the wilderness began with the report of the ten spies and the people’s unbelief. Korah and his crew were killed, and Moses was not allowed to enter Canaan when he returned from Kadesh. He divided the land of Canaan by lot in the plains of Moab east of the Jordan.

There were good things and pleasant moments, but Moses did not skip the places where they were disciplined for greed and disobedience. He also recorded every failure and fall. In every camp there was God, and in each area, there were God’s works and the lessons left behind. That’s why we need to read this tedious record. It is up to us to choose whether to obey God’s will and walk on a peaceful path or whether we will receive God’s discipline for disobedience. Until we enter Canaan, God’s grace will not stop. Our life’s journey, like the wilderness, is a place worth going to and a place to remember because God is ther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YouTube @기쁨의 언덕으로



화요일 · Tue

30

2022 August

여섯 개의 도피성

Six cities of refuge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가나안 땅의 경계와 각 지파에서 땅의 분배를 책임질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땅 분배에서 제외된 레위인들이 살 곳을 정해 주십니다. 또한 도피성을 만들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 새282장(통339장)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나의 피난처 예수

묵상 · 민수기 35:11-18, 25-29

통독 · 민수기 34-35장

11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12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13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14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15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16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17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18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25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26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27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28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29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버팔로한인연합감리교회, 국재현(NY)
부르클린한인연합감리교회, 이호승(NY)
목회자를 위한 기도

피난처 되시는 예수 Jesus as Refuge

피 흘림의 죄는 반드시 피로만 속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33절). 연장을 들었거나 악의로 살인하면 죽음으로 짓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을 보호하길 원하셨습니다. 요단강 동, 서편에 각각 세 개의 도피성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 거류하는 모든 자들이 피할 수 있습니다(15절). 그러나 도피성에 당도하였다고 하여 그들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대제사장의 죽음으로만 도망자는 속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속함을 받은 이는 도피성에 머물까 다텔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죄의 사슬을 끊고 주님이 허락하신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The sins of shedding blood could only be atoned for through blood (v. 33). If he murdered out of malice using a weapon, he would have to pay with the penalty of death. However, God wanted to protect those who accidentally killed people. He prepared three cities of refuge, on both the east and west sides of the Jordan River. In the city of refuge, the Israelites, foreigners, and all sojourners can find refuge (v. 15). However, their sins do not go away just because they reach the city of refuge. Only by the death of the high priest could the fugitive be redeemed. On the other hand, there is no reason for those whose sins are forgiven by the death of the high priest to remain in the city of refuge.

We have been redeemed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our High Priest. Jesus is our city of refuge and our high priest. Even when we stumble and fall, a loving God forgives and saves us. I pray that you will break the chains of sin by relying on the merits of the blood and enjoy the freedom and joy that the Lord has granted you.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수요일 · Wed

31

2022 August

끝나지 않은 책

Unfinished book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36장은 시집간 여성에 대한 땅 분배의 규례와 이를 순종하는 슬로브 핫의 딸들의 이야기를 통해 가나안 땅과 새로운 세대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 새447장(통448장) 이 세상 끝날까지

특상 · 민수기 36:1-13

통독 · 민수기 36장

1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 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아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 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2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였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 핫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3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4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5 모세가 여호와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6 슬로브 핫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 핫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7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8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9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10 슬로브 핫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11 슬로브 핫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12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13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스태튼아일랜드한인교회, 정광원(NY)
시라큐스스망연합감리교회, 송지혜(NY)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끝나지 않은 책 Unfinished Book

하나님의 징벌로 광야 40년을 유랑하게 된 이스라엘의 기록의 마지막은 ‘기업을 지키라(7, 8, 9, 12절)’라는 명령과 ‘딸들의 순종(11-12절)’으로 끝이 납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의 청원으로 딸들도 땅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같은 지파의 남성과 결혼할 때에만 땅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두 므낫세 자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7년 이상의 정복 전쟁을 거쳐야만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지만,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이미 가나안을 소유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 안에 약속의 땅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땅 한 평도 마음대로 가질 수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땅의 소망이 있습니다. 순례길을 마친 후 우리가 들어가 살게 될 하늘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민수기는 순종함으로 기업을 지키 낸 새로운 세대의 모습을 기록함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기업과 전적인 순종의 삶의 모습에 대해 도전을 줍니다.

Israel’s record of wandering in the wilderness for 40 years as a punishment from God ends with the command to “keep the inheritance” (vv. 7, 8, 9, 12) and “the obedience of the daughters” (vv. 11-12). At the petition of Zelophehad’s daughters, the daughters were also given land. However, they could only own land if they married a man of the same tribe. Zelophehad’s daughters obeyed the Word of God and became the wives of the Manasseh descendants. After that, Israel would have to go through more than 7 years of war of conquest to claim the Promised Land. They were filled with a sure hope for the Promised Land.

Israel lived as slaves in Egypt. They were not able to own even a small piece of land freely but they will now be the owners of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We too will become the people of the kingdom that God has established. We, who believe, also have a hope for land. It is the eternal inheritance in heaven that we will enter and live in after completing the pilgrimage. The Book of Numbers records the appearance of a new generation that retained their legacy through obedience. The Book of Numbers is challenging our obedience and asks what is the legacy we must retain?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YouTube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 \$1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 운동

\$ 1 for every day, we are planting the church of Jesus Christ!

한인연합감리교회 교회개척 운동 Nehemiah Project-Church Planting Movement
느헤미야 \$ 1 운동 Mission Fund 웹사이트 <https://go.missionfund.org/kumcnehemiah>

교회를 세웁니다 We plant a church at a time
미래를 준비합니다 We prepare for future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God is leading our way

온라인 헌금 Online Giving

□한달 \$ 10, \$ 20, \$ 30, \$ 50 per month □하루 \$ 1 per day □한달 \$ 30 per month

여러분의 1불 헌금은 한인연합감리교회 개척을 위해 사용됩니다.

Your \$ 1 offering will be used for church planting projects of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es

연합감리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Your offering will support for futur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 한어회중 Korean speaking congregation
- 영어회중 English speaking congregation
- 차세대회중 Next generation ministry
- 다인종사역 Multi-ethnic ministry

느헤미야 운동의 교회개척 사역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How can we participate into church planting projects for Nehemiah project?

- 가정에서 함께 드립니다. You may give as a family.
- 자녀들과 함께 매달 드립니다. You may share with your children.
- 신용카드로 헌금합니다. You would give with your credit card.
- 느헤미야 운동을 통해, 비과세기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This gift can be listed as a tax-deductible gift for your tax report.

Mission Fund 웹사이트 <https://go.missionfund.org/kumcnehemiah>

우편으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Check payable to Nehemiah Project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 운동본부 Nehemiah Project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 Email contact : kumcdevotion@gmail.com

2022년 8월 기쁨의 언덕으로

소그룹 교재



먼저오심 하나님을 알기 이전 이미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역사하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만나주심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다듬으심 우리를 다듬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성결과 성화의 은혜)을 경험합니다.

들어쓰심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 첫째 주 소그룹 모임 거룩함을 지키라 | 민수기 3:1-13
- 둘째 주 소그룹 모임 믿음의 눈으로 | 민수기 13:25-33
- 셋째 주 소그룹 모임 쳐다본 족 모두 살리라 | 민수기 21:4-9
- 넷째 주 소그룹 모임 모세의 리더십과 새로운 지도자 | 민수기 27:12-23

거룩함을 지키라



새422장 거룩하게 하소서
 새425장(통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01 여는 질문

규칙을 지키지 않아 곤란을 겪은 경험이나 규칙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해봅시다.

02 본문 이해

하나님은 아론의 네 아들들에게 기름부어 구별하신 후, 제사장의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며, 성막에서 봉사하고, 백성을 위해 속죄하고, 복을 비는 일을 했습니다(대상 6:49, 23:13). 성막이 완성된 후, 하나님은 성막의 기구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구별하셨습니다(출 40:9-11). 왕을 세우실 때(삼상 10:1)와 선지자의 직무를 맡기실 때(왕상 19:16)에도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기름부음 받은 자들은 거룩함을 지키며 맡겨진 직무를 감당해야 했고, 기름부음 받은 물건들도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에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성막의 기구들을 옮기는 고한 자손이 성물을 보거나 만지면 죽게 되는 이유도(민 4:1-10) 그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부어 구별하신 자들 중 아론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성막 뜰의 불을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불을 담아 분향했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불로 죽임을 당했습니다(민 3:4, 레 10:1-2). 이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일지라도, 그 행위가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일 일지라도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다면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것을 만홀히 여길 때에 반드시 죄의 값을 치르게 됩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분명히 아는데서 시작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구별하는데서 시작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뜻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앞

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지식과 견해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막의 일은 제사장들만으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택하셔서 성막 봉사를 돕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하여 택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사실 장자 지파는 르우벤이었지만,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동침함으로써 장자의 자격을 잃었습니다(창 35장). 레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러기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의 일 외에는 자기를 위한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택함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벧전 2:9)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거룩한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명과 직분을 감당키 위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03 말씀 속으로

1. 하나님이 레위 자손을 택하여 사용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13절)

04 삶 속으로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거나,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삶의 태도들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거룩한 습관을 세우기 위해 결단합니다.

05 암송 구절 민 3:3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 받은 제사장들이라

06 자녀와 나눔

주일 예배(교회학교)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이야기해봅시다.

믿음의 눈으로



새359장(통401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새546장(통399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믿음으로 서리라

01 여는 질문

출렁 다리를 건너본 적이 있습니까? 다리를 건너는 동안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02 본문 이해

출애굽 2년, 시내광야를 떠난 지 1년이 지난 때에 이스라엘은 가나안과 매우 근접한 바란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약속의 땅에서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광야 40년과 출애굽 1세대의 절멸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두 지파에서 각 한 명씩을 정탐꾼으로 선택했습니다.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2절),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들(3절)이 선발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돌보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어야 했습니다.

정탐꾼들은 사십 일 동안 약속의 땅을 돌아보고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들의 어깨에 커다란 포도송이를 멘 것을 보면 열매가 풍성한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복된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열두 정탐꾼 중 열 명의 보고와 다른 두 명의 보고가 매우 달랐습니다. 열 명의 정탐꾼은 그 땅이 좋기는 하지만 성읍은 견고하고, 클 뿐 아니라 사람들도 너무 크고 강해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반면 다른 두 정탐꾼 중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30절)라고 말합니다. 각기 다른 두 가지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은 소리 높여 밤새 통곡하며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열두 명이 모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 땅이 척박하고 황폐하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들어갈 수 없을 것 같다는 말에만 반응합니다. 스스로를 메뚜기같이 여기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거나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고 말

합니다. 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을 설득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민 14:8), “...여호와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민 14:9). 두 정탐꾼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고 외칩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셨기에 주저할 까닭이 없다고 설득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이 말한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대로(민 14:28)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처지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두려움 그 자체를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겠노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불신앙, 불순종의 죄입니다. 노예의 삶에서 구원하시고 비옥한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출애굽 1세대처럼 어린 양의 피로 구속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03 말씀 속으로

1.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차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8-29절, 32-33절)
2.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 13:30, 민 14:7-9)

04 삶 속으로

죽음, 질병, 헤어짐, 실패 등 다양한 이유와 종류의 두려움이 삶을 엄습합니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05 암송 구절 민 14:8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06 자녀와 나눔

새 학기가 얼마나 기대되고 설레나요? 또는 마주하기 싫은 두려운 일들이 있나요?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새304장(통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새250장(통182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새268장(통20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함은

01 여는 질문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 속회와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인지 함께 나눠봅시다.

02 본문 이해

광야에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갈증과 굶주림, 낮의 무더위와 밤의 추위, 이방 민족의 물리적·영적 공격은 물론이고, 광야에 살고 있던 뱀과 같은 맹독성의 짐승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걷는 동안 뱀에 물려 죽지 않은 것조차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행진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틈만 나면 불평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광야 유랑을 마친 이스라엘이 다시 가데스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했고, 모세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두 번 바위를 쳐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함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록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모세는 광야 여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에돔 왕에게 그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청원을 보내지만 에돔 왕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에돔 왕의 거절에 이스라엘은 마음이 상하였습니다(4절). 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원망을 쏟아 냅니다. 민수기에 등장하는 열 번째 불평입니다. ‘매일 먹는 만나가 이제 지겨워서 못먹겠다’,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이 싫다’(5절)는 것입니다. 물이 없음에 불평하여 하나님이 물을 내어주시신지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애굽에서부터 권능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광야 40년을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할 것이 차고 넘치는데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40년을 돌보셨음에도 여전히 땅의 것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불평하는 이스라엘에 불뱀을 보내 백성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자 이스라엘은 저들의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뱀뱀을 장대에 다니 뱀뱀을 보는 자는 모두 살았습니다. 뱀뱀이 치료의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뱀뱀을 위해 지불해야 할 값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뱀뱀을 보는 자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이 무엇인지 묻는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뱀뱀을 들었던 것 같이 인자도 들리울 것”(요 3:14)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또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겠다”(요 3:15)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03 말씀 속으로

1. 이스라엘이 불뱀의 심판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7절)

04 삶 속으로

우리 인생에서 계획한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하고 낙담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05 암송 구절 요한복음 3:14-16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06 자녀와 나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세의 리더십과 새로운 지도자



새347장(통382장) 허락하신 새 땅에
새485장(통534장) 세월이 흘러 가는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01 여는 질문

가족이나 이웃을 위해 중보기도한 이야기나 중보기도의 응답을 받은 경험을 나누어봅시다.

02 본문 이해

모세는 하나님께서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13절)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 반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못한다고 여러차례 거절했음에도 저를 부르셔서 바로 앞에 세우시더니, 40년을 고생하며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저들의 불평과 원망을 다 들으며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을 바라보라고만 하시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너무나 것 아닙니까?’라고 할 법도 한데, 오히려 모세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합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16-17절).

40년 동안 모세로 하여금 차라리 여기서 죽게하십시오(민 11:15)라고 할 만큼 괴롭던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본인의 죽음 후에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세의 추천이나 의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르시면 따르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택하신 하나님께도 온전히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18절)라고 하시며 모세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세우셨습니다. 모세는 늘 그러했듯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대로” (22-23절) 여호수아를 가나안 정복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안수하고(18절), 위탁하고(19절), 복종하게(20절) 하였습니다. 모세의 모든 지도력을 넘긴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모세의 자리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모세가 대대로 이스라엘에서 추앙받는 지도자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가나안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교회 사역이나 직장, 가정의 일을 하다보면 원하지 않는 때에 그만 두어야 할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나 내가 맡은 일을 마무리하거나, 더

좋은 결과를 위해 내가 필요할 것이라는 착각에 미련을 남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이뤄지는 것입니다. 손을 떼어야 할 때, 새로운 지도자를 위해 중보하고, 남겨진 사역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지도록 기도하는 것도 떠나는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03 말씀 속으로

1.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 27:14, 민 20:1-13)
2.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8절)

04 삶 속으로

지금 내가 맡고 있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또는 리더로서 맡겨진 사명과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05 암송 구절 히브리서 9:15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름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06 자녀와 나눔

다치거나 몸이 아플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Keeping Holiness



Make Me Holy in My Life
Have Thine Own Way, Lord
Create in Me a Clean Heart

01 Opening Discussion

Let's talk about a time when you struggled with not following the rules or when you realized the benefits of following the rules?

0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After anointing Aaron's four sons, God set them apart and entrusted them with priestly duties. The priests served God, offered sacrifices, served in the tabernacle, made atonement for the people, and offered blessings (1 Chr 6:49, 23:13). After the tabernacle was completed, God also anointed the utensils of the tabernacle to set them apart (Exod 40:9-11). He anointed the king and the prophets when he appointed a king (1 Sam 10:1) and when he entrusted the office of a prophet (1 Kgs 19:16). The anointed had to maintain their holiness and perform their assigned duties, and since all the anointed items belonged to God, men had no control over them. The reason why the Kohathites who carried the tabernacle's utensils would die if they saw or touched the holy things (Num 4:1-10) was because the holiness of God was damaged.

Among those whom God anointed and set apart, the two sons of Aaron failed to keep holiness before God. God commanded them to use the fire in the courtyard of the tabernacle when offering sacrifices. This was also an ordinance that was ordained by God and must be followed. But Nadab and Abihu each took their censer and burned incense with fire that the Lord had not allowed, and they did not follow the time set by God. They were eventually killed by fire (Num 3:4, Lev 10:1-2). This is a warning from God. It is a warning that even if it is a priest ordained by God, even if it is a sacrifice to God, if it damages the holiness of God, it may lead to death. When

you do not do God's will or neglect God's things, you will inevitably pay the price for your sins.

Keeping holiness begins with a clear knowledge of what is of God and of the world. It also begins by distinguishing between God's will and mine. How many times in our lives do our will and thoughts take precedence over God's will? What God wants is for us to do the will of God, not our knowledge and opinion, even if it is a small thing. The work of the tabernacle could not be handled by the priests alone. God chose the tribe of Levi to help with the service of the tabernacle. God chose the tribe of Levi to replace all the firstborn of Israel and made it God's property. In fact, the firstborn tribe was Reuben, but Reuben lost his birthright by sleeping with his father's concubine, Bilhah (Gen 35). For the Levites, keeping God's holiness wa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Therefore, the tribe of Levi could not have any other job except for the work of the tabernacle to serve God.

All saved saints are priests of God. A royal priesthood, a holy nation, and God's own people (1 Pet 2:9), anointed with the Holy Spirit and chosen to live a life separate from the world. They are those who have received a holy mission to serve God. In order to fulfill this mission and office, we must strive every day to keep our holiness.

03 Into the Word

1. Why did God choose and use the Levites? (v. 13)

04 Into our life

Like Nadab and Abihu, let's consider our attitudes in life that neglect God's work or undermine God's holiness, and let us be determined to establish a holy habit.

05 Memory Verse Numbers 3:3

"These are the names of the sons of Aaron, the anointed priests, whom he ordained to serve as priests."

06 Sharing with your children

Let's talk about what our hearts and attitudes should be like when we hold Sunday worship services (Sunday School or Youth Group).

Eyes of Faith



Standing On The Promises
Go Forward
Standing Firm

01 Opening Discussion

Have you ever crossed a suspension bridge? What were your thoughts as you crossed the bridge?

0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In the second year of the Exodus, one year after leaving the Wilderness of Sinai, Israel reached the Wilderness of Paran, which was very close to Canaan. All that remained was for Israel, who had lived as slaves in Egypt, to become a royal priesthood and establish a holy nation in the Promised Land. However, Israel faces the desperate situation of 40 years in the wilderness and the destruction of the first generation of the Exodus in the wilderness.

Moses chose one spy from each of the twelve tribes,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From each tribe, the commanders (13:2) and the chiefs of the children of Israel (13:3) were selected. They were people who had to lead and take care of Israel according to God's will. They had to know God's will more than anyone else and act according to His will.

The spies toured the Promised Land for forty days and returned to the camp. Canaan was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as God had said. It must have been a land of abundant fruit, as they carried large clusters of grapes on their shoulders. They only need to occupy the blessed land. However, the report of ten of the twelve spies was very different from the report of the other two. The ten spies said that the land was good, but the city was strong and large, and the people were too big and strong for them to enter. Caleb, on the other hand, one of the other two spies, said, "Let us go up immediately and take possession of the land, for we are well able to overcome it" (Num 13:30). When Israel heard the two different reports, they raised their voices and wept all night long and complained to Moses.

All twelve did not say that they could not successfully enter. Nor did they say that the land was barren and desolate. Nevertheless, Israel reacted solely to the report that said it was unlikely

that they would be able to enter the land. They saw themselves as grasshoppers and were terrified. They said they would rather go back to Egypt or die in the wilderness. Caleb and Joshua tore their clothes and tried to persuade Israel, "If the Lord is pleased with us, he will bring us into the land and give it to us... The Lord is with us; do not be afraid of them" (Num 14:8-9). The two spies were full of confidence in the land God had promised to give them. They claimed that there is no need to fear because God is with them. God convinced them that there was no reason to hesitate because He had promised to give it to them. But Israel was killed in the wilderness just as they had said and heard in the ears of God (14:28) to the point where they could not enter the Promised Land.

Fear itself cannot be called wrong. However, forgetting God who helps us to overcome that fear and blaming God is unbelief. Not trusting in the God who promised to be with us is the sin of unbelief and disobedience. Like the first generation of the Israelites in Exodus who did not trust God's promise to deliver them from slavery and give them a fertile land, we, who were redeemed by the blood of the Lamb, need to reflect on our lives to see if we have forgotten the grace of salvation and see if we are living in disobedience to God's will.

03 Into the Word

1. Why did the ten spies say that the Israelites would not be able to take Canaan? (Num 13:28-29, 32-33)
2. Why were Joshua and Caleb persuaded that they would be able to take over the land of Canaan? (Num 13:30, 14:7-9)

04 Into our life

Death, sickness, separation, failure, and many other reasons and types of fear take over our lives. What must we do to overcome our fears?

05 Memory Verse Numbers 14:8

"If the Lord delights in us, he will bring us into this land and give it to us, a land that flows with milk and honey."

06 Sharing with your children

How excited are you about the new school year? Or are there things you fear that you don't want to face?

Look and Live



The Love of God is Greater Far
Down At The Cross Where My Savior Died
There's Power In The Blood

01 Opening Discussion

Let's share the greatest grace that God has given to me, my family, small group, and church.

0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There were many dangers lurking in the wilderness. Thirst and hunger, the heat of the day and the cold of the night, physical and spiritual attacks of the Gentiles, as well as the venomous beasts of the wilderness, such as snakes, must have been encountered. Because of God's protection Israel did not get bitten by a snake while walking in the wilderness. Israel's march in the wilderness was never easy. Without God it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However, Israel broke God's heart by complaining whenever they had time.

After wandering in the wilderness, Israel arrived in Kadesh. Israel began to complain that there was no water, and Moses struck the rock and water poured out. However, Moses did not obey God's Word and struck the rock twice, thereby damaging the holiness of God, so that Moses could not enter Canaan. Although he could not enter Canaan, Moses did not stop his journey in the wilderness. He petitioned the King of Edom to let them pass through the land, but the King of Edom did not allow it.

Israel was offended by the King of Edom's refusal (v. 4). Again, they poured out their grudges against God and Moses. This is the tenth complaint in Numbers, "I can't eat the manna I eat every day because I'm tired of it" and "We hate this trivial food" (v. 5). It was not much earlier that God provided water because they complained about lack of water. Not only that, God led Israel with power and might from Egypt and was with them for 40 years in the wilderness. Despite the abundance of things to be thankful

for, Israel is still complaining and resenting. Even after 40 years of caring for them, they still looked only to the earth and did not hold on to the promises God had given them. God is the judge over sin. He sent fiery serpents to a complaining Israel to bite the people. When many people were bitten by fiery serpents, Israel repented of their sins and asked for forgiveness. God is gracious to those who repent. Moses carried the bronze serpent on a pole according to God's command, and everyone who looked to the bronze serpent lived. The bronze snake did not have healing powers. Nor was there any price to be paid for the bronze serpent. People lived by faith in the power of God to heal those who looked at the bronze serpent. If you obey, you live; if you disobey, you die.

When Nicodemus asked Jesus what eternal life was, Jesus said, "As Moses lifted up the bronze serpent, so will the Son of Man be lifted up" (John 3:14). Jesus Himself died on the cross to forgive our sins and to save us from the penalty of sin. He also promised that "everyone who believes in Jesus on the cross will have eternal life" (John 3:15). I hope that you will become the children of God who will receive eternal life by holding on to the Word of promise and obeying it in faith.

03 Into the Word

1. How was Israel saved from the judgment of the fiery serpent? (v. 7)

04 Into our life

Have we ever been disappointed and discouraged when things didn't go as planned in our lives? How do we react when things don't go our way?

05 Memory Verse John 3:14–16

¹⁴ And as Moses lifted up the serpent in the wilderness, so must the Son of Man be lifted up, ¹⁵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may have eternal life. ¹⁶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06 Sharing with your children

What does it mean to look to Jesus?



Moses' Leadership and a New Leader



We are Bound for Canaan Land
My Days Are Swiftly Gliding By
Someone Is Praying For You

01 Opening Discussion

Let's share stories of intercession for family or neighbors or experiences of receiving answers to your intercessory prayers.

0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Moses did not rebel against God when God said, "You will return to your fathers" (v. 13). "God, even though I refused many times saying I couldn't do it, you called me and put me in front of Pharaoh. I suffered for 40 years to lead Israel and listened to all their complaints and grumblings. Isn't it too harsh to tell me that I will only have a glimpse of Canaan before I die?" Instead, Moses intercedes for Israel with a confession of faith. "O Lord, God the life of all flesh, please raise up a man over this congregation to come and go before them, and to lead them in and out, so that the congregation of the Lord will not become like sheep without a shepherd" (vv. 16-17).

He prayed to God for Israel, who tormented him for 40 years to the point that Moses pleaded to let him die then and there (Num 11:15). He asked for a leader to lead Israel after his death. There was no recommendation or opinion from Moses. If God chooses according to God's will, you will follow it.

Moses is completely obedient to the God who chose Joshua. God called Joshua as "the one whose spirit abides in him" (v. 18) and selected him as Moses' successor. As always, Moses appointed Joshua as a new leader to lead the conquest of Canaan, "as the Lord commanded him" (Num 22:23). He laid his hands (Num 27:18), entrusted him (Num 37:19), and made him submissive (Num 27:20). It means handing over all the leadership of Moses to Joshua. Moses obeyed.

Moses' role was extensive. Although Moses has been a revered leader in Israel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he cannot enter Canaan unless God permits him to. When we do church ministry, work, or family work, sometimes we come to the point where we have to quit even though we don't want to. However, we sometimes hide regrets behind the illusion that I will be needed for better results than be needed to complete the work I started. God's work is accomplished through those who obey God in God's providence. When we have to let go of our involvement, it is God's mission for us to intercede for new leaders and to pray for the remaining ministries to be fulfilled according to God's will.

03 Into the Word

1. Why was Moses unable to enter Canaan? (v. 14; also see Num 20:1-13)
2. Why did God choose Joshua? (v. 18)

04 Into our life

As a member of this community or as a leader, what can I do for the people and the mission entrusted to me?

05 Memory Verse Hebrews 9:15

"Therefore he is the mediator of a new covenant, so that those who are called may receive the promised eternal inheritance, since a death has occurred that redeems them from the transgressions committed under the first covenant."

06 Sharing with your children

Who first comes to mind when you are sick or get hurt?

**MISSIONARY
OF THE MONTH**



Advance : # **3022319**

Country : **Switzerland**

Serving At : **World Council of Churches**

Home Country : **United States of America, North America**

Woo, Kyeong-Ah

The Rev. Kyeong-Ah Woo is a missionary with the United Methodist General Board of Global Ministries serving as Consultant to the WCC Assembly Programs and Workshops Coordinator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She is based in Geneva, Switzerland and was commissioned in the June of 2017.

The CWME is one of the most broadly inclusive ecumenical organizations, comprised not only of representatives of the Protestant and Eastern Orthodox member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but also of persons from the Roman Catholic Church and Pentecostal and Evangelical traditions. Global Ministries is an active participation in the commission. The CWME plans a major World Mission Conference in 2018, and the organization of that event is a responsibility of Kyeong-Ah.

Kyeong-Ah is an ordained elder of the Northern Illinois Annual Conference. She was born and spent her childhood and youth years in

South Korea where she became the first Christian at a young age in her family. She came to the United States in the mid-1990s and served as a US-2 missionary.

She received her bachelor's degree from Lambuth University, Jackson, Tennessee, and the Master of Divinity degree from Garrett Evangelical Theological Seminary, Evanston, Illinois. Joining the Northern Illinois Conference, she served as the solo pastor of East Jordan UMC, as an associate pastor in Glen Ellyn and as the solo pastor of the Burlington United Methodist Church, Illinois, and of First United Methodist Church, Kirkland, IL.

Kyeong-Ah considers herself blessed that both her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s were Christian mission institutions. She was baptized at age 16 with assurance that she would live a life of faith and service. "I always know for sure that God is calling me to serve God's people in whatever I do," she says. "And wherever I am following the way of Jesus whose mission was to proclaim the good news to the poor and marginalized, to liberate the oppressed, the open eyes that are blind in whatever form, and to announce the coming of God's Kingdom (Luke 4:16) in order for all to have abundant life (John 10:10).

Kyeong-Ah is married to the Rev. Dr. Jin Yang Kim. The couple has a young child, Micah.

Contact info. kwoo@umcmmission.org

사 권 의 기 도 20

김영봉 목사
와싱턴사범교회, VA

전인적인
건강에 이르는 길

인간의 몸을 '유기체(organic body)'라고 부른다.

이는 몸을 구성하는 여러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다. 성경은 자주 인간의 몸을 '영'과 '혼', '육'으로 구분하여 말하지만, 이 셋은 분리된 게 아니다. 한 몸에 통합되어 있다. 영적 상태는 곧바로 정신과 육체에 영향을 미친다. 육체적 상태 또한 정신과 영적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듯이 건강한 정신, 영성이 건강한 신체를 만든다. 따라서 깊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충만한 사귀를 즐기고 그 사귀를 통해 영성이 회복되면 전인적 건강에 이를 수 있다.

미국의 한 통계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제일 길고 건강 상태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도와 영성 생활이 가장 좋은 약임을 증명한다. 부작용 제로의 영약인 것이다.

과거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육신을 부정적으로 보고 최대한 억제하고 괴롭히는 것을 영성 생활의 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들을 금욕주의자라고 부른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금욕주의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영성 생활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약한 본능은 꾸준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든다. 이 본능을 방치해 두면 인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한 채 죄 안에서 멸망하고 만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

심을 삶 속에서 이루려면 본능적인 욕구를 통제해야 한다. 기도, 금식, 예배, 구제 등은 모두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와 어긋나는 일이다. 이러한 까닭에 기독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금욕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예수님의 태도는 분명하다. 예수님은 금욕적인 삶을 사셨고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삶을 요청하셨다. 예수님이 베푸신 잔치는 오늘의 파티와 매우 다르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은총을 감사하고 축하하는 자리였지 단순하게 먹고 즐기는 모임이 아니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본능적인 욕망을 제어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문제는 이 금욕주의가 왜곡되는 데 있다. 특히 헬라 철학의 원론과 이방 종교의 영향으로 육신을 부정하게 보고 그것을 억압하고 학대하는 것을 최상의 영성 생활로 생각하는 경향이 기독교 안에서 꾸준히 나타났다. 그들은 육신뿐 아니라 모든 물질을 악한 것으로 여긴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물질계를 악하다 규정하지 않는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구원하셨고 장차 모든 피조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실 것이다. 우리 육신은 결코 영적인 삶의 적이 아니다. 육신은 억압하고 학대할 대상이 아니라 섬기고 보살펴야 할 대상이다.

바울은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고전 6:15)'이며 '성령의 전(고전 6:19)'이라고 말했다. 우리 몸은 우리 소유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며 성령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이므로 궁극적인 소유권이 그분에게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을 거룩하게 지키고 건강하게 관리해야 한다.

육신을 가장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길은 본능적인 욕구를 무한정 채우는 데 있지도 않고, 최대한 억압하는 데 있지도 않다. 절제에 그 열쇠가 있다. 건강을 유지할 만큼 식욕을 채우는 동시에 지나친 욕구를 통제해야 한다. '사권의 기도'는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고, 영적인 깨어남은 삶의 모든 면에서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준다. 본능적인 욕구에 압도되어 살던 상태에서 벗어나 그 욕구를 제어하는 단계로 나아간다.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변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욕구를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다. 기꺼이!

사귀의 기도와 영성 생활은 전인적인 건강에 이르는 가장 좋은 길이다. 영성 생활을 통해 우리는 영과 혼, 육이 조화를 이룬 전인적 건강에 이르고 모든 생명과 함께 건강해지는 목표를 추구한다. 이 건강은 우리의 욕구를 위해 허비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된다. 우리의 생명이 진정으로 건강하려면 영적 생명력에서 우리나라와야 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데도다
(시 103:2-5)”

편집자주

2021년 김영봉 목사의 ‘사귀의 기도(IVP)’ 시리즈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성도들에게 ‘바른 기도’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사귀이 체험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리즈를 연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김영봉 목사님과 IVP-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에이브를 성장시킨 어머니의 말 “You Are Good Boy”

김명희 집사 _ 와싱턴한인교회, VA

소년 링컨 에이브는 11세가 되던 해, 아랫마을에 온 새 선생님 Andrew Crawford를 만났다. 그는 글을 읽고 쓰는 것뿐 아니라 수학도 가르쳤고, 사회인으로서의 예의도 가르쳐주었다. 예를 들면, 숙녀 앞에서는 모자를 벗어 예의를 갖춰야 하며, 숙녀가 방 안에 들어왔을 때에는 어떻게 정중히 인사해야 하는가 등에 대해 알려주었다. 봄부터 가을 서리가 올 때까지 맨발로 사는 시골 아이들에게 신사도를 가르쳐 준 셈이다. 에이브가 일생 동안 숙녀들 앞에서 언제나 모자를 벗어 들었다는 기록을 볼 때, 그는 좋은 학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에이브는 글씨를 쓰기 시작했고, 그즈음에 시한편을 쓴 것으로 보인다.

내 이름은 에이브러햄 링컨이다.
내 연필로 나의 이름을 썼다.
나는 흘려서 멋지게 썼다.
여기에 남겨두니 누구든 바보들은 읽어라.
에이브러햄 링컨은 손이 있고 연필이 있다.
그는 좋은 일을 할 것이다.
언제 그럴지는 하나님만 아신다.



11세 어린아이의 시라고 하기엔 매우 비범하다. 그는 이미 그 자신이 누구인지를 스스로 규정했다. “손과 연필이 있는 나”를 새롭게 발견하는 에이브. “나 에이브러햄 링컨”이라는 존재가 처음으로 세상에 나온 셈이다. 그가 여덟 살 때부터 도끼를 손에 들고 지속적으로 일을 했다는 것을 감안할 때에 이것은 혁명적인 선언이다. 그의 손에는 도끼가 아니라 연필이 들렸다. 또한 이 시에서 “그는 좋은 일을 할 것이다”라는 선언은 어머니가 늘상 하시던 “You are a good boy”라는 말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토록 좋은 어머니가 늘 “You are a good boy”라고 했기에 그는 스스로를 좋은 일을 할 사람으로 여긴 것이다. “언제 그럴지는 하나님만 아신다”에서 소년 링컨의 마음에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희미하게나마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추상적인 개념이 이미 어린 에이브의 영혼에 자리를 잡은 것 같다.

소년 에이브는 아버지를 도와 열심히 일했다. 그는 나무를 자르고 밭을 개간하고 씨를 뿌렸다. 가을이면 추수를 하고, 목수였던 아버지에게 목수 일도 배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가 좋아한 것은 책이었다. 그는 “이솝의 이야기”를 읽고 또 읽곤 했다.

당시 책이란 금처럼 귀한 것이었다. 어느 날 먼 친척으로부터 빌려 온 “Life of Washington”이란 책이 폭풍으로 인해 날아가 겹장이 망가졌을 때 에이브는 책 주인의 옥수수밭에 가서 사흘 동안 옥수수를 따 주고는 그 값으로 책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사촌 형 데니스 행크스에 의하면 “에이브가 12세가 된 이후로 그가 책을 지니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본 일이 없다. 밭 갈이를 나갈 때에도 책을 옷저고리 주머니나 바지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그리고 밤이 되면 벽난로 불에 책을 읽었다”라고 한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일 년이 지난 어느 날 아버지 토마스 링컨은 옛 고향 켄터키에 가서 새어머니 Sarah Bush Johnson을 데려왔다. 아버지 토마스의 어린 시절 이웃 친구였던 그녀는 세 아이의 어머니기도 했다. 어느 날 아침 에이브 남매는 멀리서 온 새어머니를 소개받았다. 소년 에이브는 조용하고 따뜻한 미소를 짓고 서 있는 키가 크고 몸집이 단단한 새엄마를 올려다보았다. 새엄마는 에이브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 주었다. 그때부터 그녀는 에이브의 고독한 영혼을 달래주고 보호해 주는 여신이 되었다.

단칸 방 통나무집에는 에이브의 사촌 형 데니스를 포함해 8명의 식구가 살았다. 에이브와 데니스는 못으로 된 옷걸이를 잡고 기어올라가 지붕 밑 침대에서 자며 여름에는 비 오는 소리를, 겨울이면 눈 오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다. 그때부터 에이브는 장난과 우스개를 좋아했다. 한 번은 어린 의붓 동생에게 진창을 견게 하고 집에 데리고 들어와 그를 거꾸로 세워두고 천장을 견게 하여 천장에 진흙 발자국을 내어 어머니 사라 부인을 웃겼다. 그리고는 천장을 깨끗하게 씻어 놓았다. 새어머니 사라 부인은 에이브를 예뻐했으며, 에이브가 장래에 큰 사람이 될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며, 누구든 에이브를 괴롭히면 안 된다고 아이들을 주의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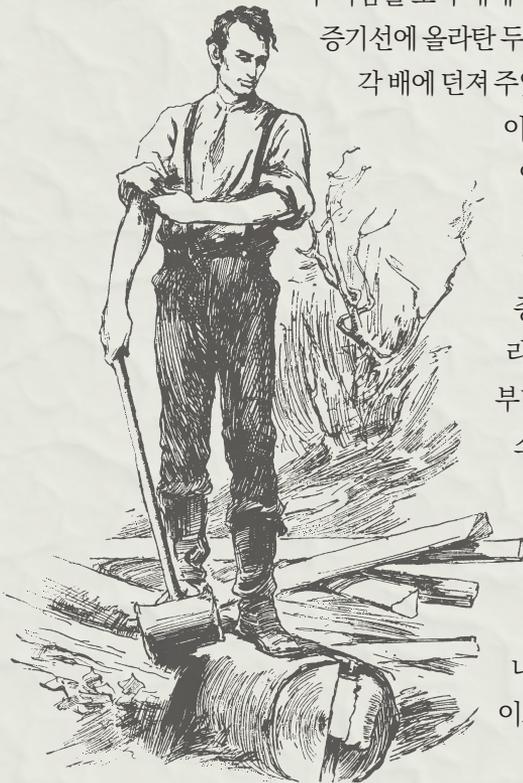
세월이 흘러 에이브러햄 링컨은 건장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17세에 그는 6피트 4인치의 장신이 되었고, 긴 다리와 긴 팔을 가지게 되었다. 그 시절 링컨의 이웃은 “에이브처럼 나무에 도끼를 깊이 박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회상했다. 아버지를 따라 이웃의 집을 짓는 일을 하고 Pigeon Creek Community 마을에 새로운 교회 건물을 지을 때도 에이브는 아버지를 도와 목수 일을 하였다. 때론 이웃집에서 맡긴 일당 25전 짜리 일을 하기도 했다.



한편 에이브는 대부분의 시간을 숲속에서 혼자 일했다. 자신의 도끼 소리, 흔жат말, 나무 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내는 소리, 동물들의 울음소리, 새소리를 동무 삼아 일했다. 고독 속에서도 그는 열린 하늘과 변화하는 계절과 더불어 살았다. 숲속의 정적은 에이브의 젊은 마음속에 자리 잡았고 그의 영혼을 넓혀갔다. 또한 링컨 가족은 이 마을 교회의 중요한 멤버가 되어 교회생활도 하였다. 그들은 일요일엔 교회 가고 성경을 읽고 성탄절과 부활절을 지나며 마을 사람들의 종교 생활에 동참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오하이오 강가에서 뱃사공으로 일하는 제임스 타일러에게 에이브를 보냈다. 에이브는 거기서 일당 37전 짜리 일을 맡아 시작했다. 그러다가 쉬는 시간이 생기면 작은 조각 배를 만들었다. 하루는 여행객 두 사람이 강 언덕을 뛰어 내려오며 에이브에게 강 한가운데에 있는 증기선에 데려다줄 것을 청했다. 에이브는

두 사람을 조각 배에 태워 증기선에 데려다주었다. 떠나려는 증기선에 올라탄 두 여행객들은 50전 짜리 온전 두 쪽을 조각 배에 던져 주었다. 이에 에이브는 “나 같은 가난한 아



이가 잠깐 일을 하고 1불을 벌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회고했다. 강 한 가운데를 운행하는 증기선을 타려는 여행객들을 데려다주는 일이 종종 있게 되자 켄터키 쪽에서 뱃사공의 라이선스를 가지고 일하는 Dill 형제로부터 소송이 들어왔다. 에이브가 라이선스도 없이 일을 했다는 이유였다. 에이브는 어리둥절한 채로 켄터키 법정의 Samuel Pate 판사앞에 서야만 했다. 그날 법정에 ‘그가 여행객을 태워준 것은 오하이오 강의 인디아 나 쪽에서 증기선이 있는 강의 중간까지 이므로 켄터키 법을 어긴 일은 없다’고 주

장했다. 판사는 에이브의 편을 들어주었다. 이러한 경험은 에이브로 하여금 법에 대해 관심을 갖게 했다.

자연과 가족과 이웃들과의 교류는 그의 고등교육 수련장이었다. 그는 책을 읽고 문맹인 이웃 사람들을 위하여 편지를 써 주었다. 이웃 사람들의 편지를 쓸 때에는 그들에게 “무엇을 쓰고 싶습니까? 어떻게 쓰고 싶습니까?”라고 물었고, “그것이 최선인가 아니면 더 좋은 문구로 고칠 수 있는가?”라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30마일 거리에 있는 법원에 걸어가서 변호사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정치 모임에 가서는 정치인들이 열변을 토하며 논쟁하는 것을 듣기 좋아했다. 가끔 아랫마을에 나타나는 선교사들의 열정적인 설교를 듣고는 그들의 설교를 그럴듯하게 흉내 내어 사람들을 웃기기도 했다. 담배도 피워보고 술도 마셔 보았다. 그러고는 술과 담배는 몸과 마음에 좋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828년 시집간 누나 사라가 아기를 해산하다가 사망했을 때 하나밖에 없는 누나를 잃은 젊은 에이브의 바닥 모를 슬픔을 달래주고 위로해 준 사람은 서모 사라 여사였다. 이제 19세의 청년이 된 에이브, 누나를 잃은 슬픔은 좀 더 심각한 형태로 그의 영혼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이 세상에 나와서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 어머니와 누나를 잃은 것이다. 34세 어머니의 죽음, 21세 된 사라 누나와 그 아기의 죽음, 때때로 일어나는 우유병으로 사라져 간 수많은 사람들, 가족들, 어느 해에는 우유병으로 데니스 행크스는 네 마리의 젖소와 열 마리의 송아지를 잃었다. 인디아나 서부 개척지 산촌에서 젊은 에이브의 뼈가 자라고 어깨에 붙는 힘살이 그 형태를 다져가는 동안 또 다른 요소, 눈에 보이지 않는 영구적인 요소가 그의 심장 속에 깊숙이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그는 슬픔의 사람이었다.

편집자주

〈에이브러햄 링컨과 그의 신앙〉 연재를 시작하는 김명희 집사는 시인이며, 번역문학가로, 고려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조지워싱턴대학에서 심리학과 창작을 공부했다. 그녀는 국무성에서 통역관으로 오랜 기간 일하며 시인으로 등단하였고, 영시를 한글로, 한어시를 영어로 다수 번역했으며, 이상(李箱)의 오감도(烏瞰圖)를 영어로 번역, 출간했다. 역사에 관심이 많던 그녀는 링컨의 전기를 읽고 매료되어 워싱턴 중앙일보에 〈링컨 스토리〉를 연재했다가 후에 〈에이브러햄 링컨〉(도서출판 선)을 출판했다.

유성준교수의 새로 쓴
세이비어교회
이야기

02

신앙과 지성사, 2022



설립자 고든 코스비 목사의 생애와 사역

23년간 미국에 살면서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교회는 워싱턴 디시에 위치한 세이비어교회이다. 1947년 고든 코스비에 의해서 설립된 이 교회는 철저한 입교 과정과 고도의 훈련을 통해 150여 명 정도의 교인으로 교회의 사회적 활동에 있어 미국의 교계를 움직이는 가장 혁신적인 교회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1 영성과 사역의 철저한 균형을 강조하는 목회철학

세이비어교회가 개척 때부터 지향해 온 목회철학은 ‘영적인 삶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고, 예수 중심의 사회적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들에게 헌신하는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역’이다.

이러한 정신이 원동력이 되어 1960년에 지역사회 사역인 카페와 서점을 동시에 운영하는 “토기장이의 집”이 생겼다. 그리고 저임금 가족을 위한 임대주택 보급사역을 실시하고, “그리스도의 집”과 “사마리아인의 집”, “미리암의 집” 등의 치유사역을 통해 빈민지역의 주민들과 실업자, 노숙자, 마약중독자, 알코올중독자들을 치유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난 75년의 역사를 통해 이제 세이비어교회는 7개 분야에 45가지의 연관된 지역사회사역을 진행하며 연간 2,000만 달러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는 역동적인 교회가 되었다.

2 코스비 목사 부부의 만남과 결혼

세이비어교회의 개척자인 고든과 메리는 버지니아주의 린치버그에 있는 리버몬트 에비뉴 침례교회에 메리의 부친이 담임목사로 부임해 왔을 때 처음 만났다. 그 당시 메리는 10세였고 고든은 15세였다. 미국 남부의 교회는 종교생활뿐 아니라 사회생활, 사교생활의 중심이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한 교회 안에서 친하게 지

내며 자라났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고든은 19세가 되자 곧바로 신학교에 입학하였고 그곳에서 몇 년을 지내면서, 일반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일반 대학으로 편입하여 공부하였다. 후에 켄터키주 루이빌에 있는 남침례교신학대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마쳤다. 고든은 신학과 일반 대학 두 과정을 동시에 공부하여 졸업하였고 메리는 일반 대학을 마쳤다. 그리고 대학 졸업 후 8일 만에 결혼하였다.

신학교 재학 시절 고든은 자신이 보고, 알고 있던 교회와 신약성서에서 읽은 교회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든은 메리에게 “어떻게 하면 이 둘 사이의 불일치를 줄이고 온전한 교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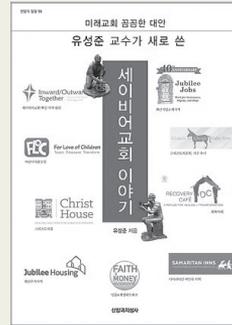
새로운 교회에 대한 열망은 고든에게 있어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는 15세 때부터 당시 린치버그의 조그마한 흑인 교회의 교인을 섬기는 설교자로 3, 4년을 보낸 적이 있다. 그가 한 번은 흑인 동네를 방문하던 길에 오래되어 버려진 건물 한 채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그 지역에 있는 흑인교회 중 하나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모습이었다. 그 교회는 목회자를 모실 여유가 없기 때문에 교회 문을 닫았다고 했다. 고든은 그들의 목회자가 되겠다고 제안했고, 그다음 주일 그 교회에 가서 시범으로 설교를 했다. 그리고 신학교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매 주일마다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고든은 그곳에서의 경험이 어떤 면에서 신학교에서 배울 때보다 더 많이 성숙하는 기회가 되었고 평생 동안 새로운 교회에 대한 열망을 가지는 출발점이 되었다고 회고했다.

3 2차 세계대전에 군목으로 종군, 인간의 한계를 목격

신학교를 마치고, 고든와 메리는 버지니아주 알링톤에 있는 작은 침례교회로 부임해 갔다. 그들은 그곳에서 1년 동안 있었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며 고든은 군목으로 섬기게 되었다. 고든은 2년 반 동안 군목 생활을 했으며, 군대 생활 동안의 경험은

그가 속한 남침례교단으로 다시 돌아와 목회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군목으로서 그는 101공수부대와 함께 유럽으로 파병되었다. 그가 참전한 곳은 노르망디 상륙작전 등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였다. 그는 죽어가는 장병들과 함께 했고, 그들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죽음을 맞는 것을 보았다. 그동안 그의 교회생활은 그때 그가 보았던 삶과 죽음의 경험과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2년 반 동안의 고된 시련을 거치면서 그는 다시 전과 같은 목회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메리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는 어떤 형태든 새로운 목회를 시작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 새로운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예전의 조직 속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은 확실했다. 그가 전장에서 경험하고 보았던 것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었다.



4 평등사상과 교인들의 온전한 추구에 대한 비전

고든이 생각한 새로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새로 시작하는 교회는 인종적으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믿음이었다. 1940년대 인종차별이 심한 미국 남부지역에서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도 당시 침례교회에서는 그를 파송하지 않았을 것이다. 두 번째는 교인들의 정직성과 성실성을 철저하게 실현하는 교회였다. 고든이 전쟁 기간을 통해 한 가지를 깨달은 것은 병사들이 어느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그들의 삶과 죽음의 방식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고든은 어떻게 그들의 비전을 실현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처음에 그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당대 재벌인 존 록펠러가 쓴 사설을 읽었다. 그 사설의 내용은 에큐메니컬 운동과 뉴욕시에 있는 리버사이

드교회를 통해 록펠러가 그 운동에 참여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록펠러의 동역자들과 자신의 비전을 나누기 위해 뉴욕에 찾아갔다. 그들과의 만남이 그의 새로운 사역에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혹은 그들이 사역에 재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경험을 통해 고든은 큰 것을 통해 엄청난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릴 수 있었다. 이것이 그가 군목 생활로부터 돌아온 첫해의 일이었다. 결국 코스비 목사는 전쟁을 통해 얻은 좌절과 경험을 구체적으로 사역에 적용하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고도의 영적 훈련을 받은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생각이 이때부터 뿌리내리기 시작한다.

5 세이비어교회의 개척과 입교인 훈련과정 시작

그 후 메리의 아버지가 워싱턴 디시 근교의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제일침례교회에 담임목사로 부임해 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들은 워싱턴 디시 지역을 사역의 기반으로 삼을 수 있었다. 그들이 생각했던 다음 단계는 그들의 비전을 위해 워싱턴 디시 지역에 건물을 구하는 것이었다. 그 당시 그들과 함께 했던 유일한 사람은 뉴욕 월가의 투자 상담자였던 밥 네프 씨였다. 고든은 건물 구입과 관련하여 회계를 맡아달라고 부탁했고 그는 그와 관련하여 그들이 얼마의 재정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다. 고든은 그에게 자신의 할아버지가 37달러를 유산으로 주었다고 이야기했다. 그것이 그들의 첫 번째 건물을 위한 재정이었다. 그리고 워싱턴 디시의 19번가에 위치한 한 작은 건물을 구입했다. 그는 1946년 그의 아내 메리 캠벨 코스비와 다른 일곱 명과 함께 그 새로운 꿈을 향한 첫발을 내딛었고, 그곳에서 1947년 훈련기관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학교 The School of Christian Living”라는 이름 아래 세이비어교회의 최초 입교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첫 번째 교인 멤버십 헌신 서약서를 세우게 되었다.

19번가에 위치한 그 건물은 오래되고 초라했지만 보수작업을 마쳤을 때, 그 건물은 아름다운 작은 예배당이 되었다. 메리는 예술적인 재능을 살려 매우 그 건물을 아름답게 장식했다. 고든 부부는 아름다움은 인간의 영혼을 살찌운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후 어떤 사역을 하던 모든 공간들을 미학적으로 아름답게 꾸미도록 노력하였다.

편집자주

『유성준 교수가 새로 쓴 세이비아교회 이야기』를 새로 연재합니다. 이 책은 세이비아교회와 서번트 목회에 관한 연구들을 담고 있으며 세이비아교회의 실질적 사역 매뉴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교회가 가야 할 방향과 난관을 타개할 비전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금번 시리즈를 게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유성준(한국 서번트리더십훈련원장) 목사님과 신앙과지성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일기

신경미(와싱턴제일연합감리교회)

12/29/20(화) 오전 05:02

어제 준오와 함께 Cracker Barrel 식당에서 점심 식사하면서 믿음의 대화가 가능
한 아들로부터 새로운 진실의 말을 듣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준오는 엄마가 조언하고 알려준 대로 아무 말 없이 따라 갔던 것은 엄마를 trust, 신
뢰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감동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아들을 그동안 키우면서 제 생각으로 제 지식으로는 알지 못해 답답할 때
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지혜를 주세요, 알려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하면 모든
것을 제 성격에 맞춰서 필요한 시간에 항상 제가 눈을 떠 알게 하시고 즉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실 시니어 12학년까지의 과정에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며 아이를 인도한다는 것
은 정말 어렵고 힘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준오가 엄마를 믿고 신뢰해서 따라감같이

신경미도 하나님을 신뢰해서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임마누엘!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저에게 정결한 마음 주시어서 옹호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시편 52:10-11)

준오가 좋아하고 따르는 빈센트 바웰 수학선생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흥미로운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라이스 대학교에서 많이 만나게 해주세요. 준오의 성향과 관심분야와 재능을 Rice 대학교에서 무궁한 개발과 발전할 수 있는 기회와 부모의 재정 형편까지도 커버해 주는 학교의 합격을 허락하여 주세요.

사람들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9)

이 잠언 말씀 받고 기도합니다.

내가 알 수 없는 비밀한 세상에서는 이미 바쁘게 준오를 위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가나의 혼인잔치 말씀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비밀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인들은 압니다. God bless 많은 하인들! 준오에게 라이스 대학교에서 일어날 기적을 만들어 가는 하인들을 기억하소서. 본인 당사자 준오, 기도로

돕는 저, 고마운 카운셀러 앤드류 타파로, 빈센트 바웰 수학선생님, 스페니시 선생님 그리고 라이스대학교 입학 사정관들 등 그들은 준오의 성장과정으로 물이 포도주

로 변하는 것을 아는 하인들이고 준오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하나님의 날에 증인들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연회장은 물론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
(요 2:9)**

이런저런 기도일기를 2002년부터 20년 동안 쓰면서 모아둔 일기장의 권수만큼이나 저의 믿음은 비례해가며 지금의 신경미가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믿음 안에서 만나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생활로 동고동락한 수많은 믿음의 가족들이 있었기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20년 동안 겪어온 체험들과 아픔들이 제가 귀한 그릇이었다라기보단 흔한 그릇이었을 저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들은 저의 깊은 죄성을 알고 마음을 찢는 듯한 기도를 해도 회색의 담을 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저의 한계성과 그렇지 않은 얇은 죄성은 신속하게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변화도 많이 되어진 모습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질그릇을 두드리시며 예수님과 매일 교제합니다. 어떤 때는 세상에 기울어진 생활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지면 곧바로 다시 예수님께 다가가며 내 염려를 맡기며 저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는 생활의 연속이 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만의 하나님과의 소통 방법의 노하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 ① 마음의 염려가 생길 때마다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께 설명하면서 기도합니다.
- ② 도와달라고 이 염려를 낫은 저의 관점이 아닌 높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 내려다 보시고 도울 사람들, 해결 방법의 지혜들, 일단 무조건 저를 긍휼히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③ 아침마다 주시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 부분을 설명하며 기도합니다.

어김없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슈를 드러내서 제가 발견하게 하시고,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미 늦은 듯한 일들도 날짜까지 연장해 주시면서 한걸음 한걸음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결국 빠짐없이 모든 생활의 헛점의 구멍들을 다 하나하나 메꿔 주십니다.

④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한 우리 다섯 명의 가족과 우리 부부의 노후까지도 우리는 이미 계획의 청사진을 그려놓고 그렇게 이루어가도록 위의 방법들을 추구해가며 임마누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2-3)

알찬 삶을 만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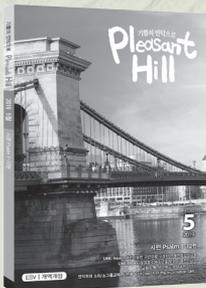
말씀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를 개척교회에 보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매일 함께 걷는 '기쁨의 언덕으로'
나의 일기, 묵상이 아닌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을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 '기쁨의 언덕으로'
한/영 이중언어로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에 한 장 성경읽기, 말씀묵상, 저널링, 온라인 참여가 가능한 '기쁨의 언덕으로'

한 권에 \$ 3.5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언덕으로'를
개척교회에 보낼 수 있도록 후원합니다.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 말씀이신 예수님과 만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기쁨의 언덕으로'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는 개척교회는 물론 캠퍼스, 군대,
교도소로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권을 후원하면	매월 \$ 35 per month
20권	매월 \$ 70 per month
30권	매월 \$ 105 per month
50권	매월 \$ 175 per month
100권	매월 \$ 350 per month

기쁨의 언덕으로 / 느헤미야운동 Email : kumcdevotion@gmail.com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문의 : 선교총무 류계환 목사 / Email: wwjd21st@gmail.com

<https://go.missionfund.org/tphbooks>

말씀묵상길라잡이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 후원

연합감리교회 한인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기쁨의 언덕으로'는
이민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한 말씀묵상집입니다.

이 묵상집은 이민자들의 영성계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합감리교회 한인공동체가 시작했고,
이민교회를 위한 이중언어 말씀묵상 길라잡이로 매달 발행되고 있습니다.

'기쁨의 언덕으로'를 위해 목회자 기획위원, 평신도 편집위원,
영어번역위원 등이 모두 자원하여 봉사하며,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기쁨의 언덕으로'를 섬기는 집필팀 워크샵,
평신도 편집위원 수련회, 개체교회를 섬기는 QT 컨퍼런스, 기획위원,
편집위원, 번역위원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을 후원하길 원합니다.

매월 □\$ 10 □\$ 20 □\$ 30 □\$ 50 □\$ 100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말씀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을 함께 후원합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 느헤미야 운동

Email : kumcdevotion@gmail.com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문의 : 선교총무 류계환 목사

Email : wwjd21st@gmail.com

<https://go.missionfund.org/tphministry>



“미 전역에 한인연합감리교회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은 모든 한인연합감리교회와 함께 합니다!”

지금 교회 리스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있으면 kumcdevotion@gmail.com 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Alabama (앨라배마 주)**

- 몽고메리주님의교회 (유혁재, 334-279-1935)
- 버밍햄한인연합감리교회 (지홍일, 205-957-0595)
- 프렛빌한인교회 (홍성국, 334-221-9392)
- 현스빌감리교회 (256-489-1158)

• **Alaska (알래스카 주)**

- 앵커리지한인연합감리교회 (금재재, 907-346-2886)

• **Arizona (애리조나 주)**

- 아리조나연합감리교회 (이기용, 480-423-7777)
- 투산제일연합감리교회 (고은영, 520-760-9749)

• **Arkansas (아칸소 주)**

- 소망연합감리교회 (조선욱, 501-308-4127)
- 아칸사한인연합감리교회 (정형권, 479-263-5434)

• **California (캘리포니아 주)**

- 가나안한인연합감리교회 (이상현, 831-333-6857)
- 가든그로브한인연합감리교회 (박용삼, 714-534-6378)
- 나성금관연합감리교회 (이석부, 310-973-5106)
- 나성복음연합감리교회 (김호용, 323-641-0691)
- 나성중앙연합감리교회 (조승홍, 213-747-4209)
- 남가주주님의교회 (김박인, 626-965-9191)
- 노스리지연합감리교회 (최오션, 818-886-1555)
- 드림교회 (정영희, 626-793-0880)
- 라구나힐스한인연합감리교회 (림학춘, 949-380-7777)
- 라팔마한인연합감리교회 (김도민, 714-226-0300)
- 로스앤젤레스한인연합감리교회 (이창민, 310-645-3699)
- 로스웰리즈연합감리교회 (신병옥, 323-382-0691)
- 밴나이연합감리교회 (안정섭, 818-785-3256)
- 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 (류재덕, 818-366-0089)
- 버클리세교회 (김종식, 510-526-7346)
- 베델연합감리교회 (한인희, 408-244-8710)

- 사랑나무교회 (이상호, 818-346-1617)
- 산타마리아베델한인연합감리교회 (남기성, 805-922-1004)
-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 (권혁인, 408-295-4161)
- 상향한국인연합감리교회 (송계영, 415-759-1005)
- 샌디에고한인연합감리교회 (정상용, 858-279-9191)
- 시온연합감리교회 (오경환, 310-834-5504)
- 어바인드림교회 (원홍연, 949-786-8354)
- 언약교회 (이상호, 909-622-8815)
- 영화연합감리교회 (강현철, 213-413-4154)
- 열린교회 (김규현, 510-652-4155)
- 예수사랑교회 (이강원, 408-746-9553)
- 오콜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 (정현섭, 510-451-9076)
- 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 (남재현, 805-488-0100)
- 온타리오 감리교회 (전재홍, 909-986-6641)
- 유바사령의교회 (이진식, 925-279-1214)
- 월셔연합감리교회 (구진모, 323-931-9133)
- 은강연합감리교회 (홍종걸, 714-870-9991)
- 은혜연합감리교회 (한진호, 818-241-9352)
-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 (신상만, 805-302-1706)
- 좋은연합감리교회 (김두식, 916-987-9191)
- 주사랑연합감리교회 (김태호, 626-575-9191)
- 카르디아연합감리교회 (김범수, 310-473-1285)
- 카마리아한인연합감리교회 (이상영, 805-389-3161)
- 크레센타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 (김용근, 818-541-0306)
- 태평양연합감리교회 (이도원, 323-255-3734)
- 도랜스한인연합감리교회 (강현중, 213-235-7659)
- 콘트리코스타한인연합감리교회 (김영래, 925-935-0191)
- 후레스노한인연합감리교회 (김규현, 559-299-0240)
- 희망교회 (김정민/가하나, 858-354-0009)
- 히스패리아한인연합감리교회 (민병렬)

• **Colorado (콜로라도 주)**

- 그리쓰도중앙연합감리교회 (주할, 303-369-0600)
- 덴버연합감리교회 (이선영, 720-529-5757)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전병욱, 303-753-8823)
푸에블로한인교회(최윤선, 719-544-5739)
한미연합감리교회(이지성, 719-570-0300)

• **Connecticut(코네티컷 주)**

뉴헤이븐연합감리교회(최영, 203-387-1579)
스탬포드한인연합감리교회(신승호, 203-353-0488)
커네티컷한인중앙교회(김정환, 860-365-0233)
하트포드한인교회(최우돈, 860-953-0141)

• **Delaware(델라웨어 주)**

델라웨어한인감리교회(송종남, 302-235-5735)

• **Florida(플로리다 주)**

남부플로리다한인연합감리교회(이철구, 954-739-8581)
올랜도한인연합감리교회(김호진, 407-801-2731)
달라하시한인연합감리교회(김종권, 850-228-1414)
탬파한인연합감리교회(한명훈, 813-907-5815)
헤르난도한인교회(윤대섭, 352-726-7245)

• **Georgia(조지아 주)**

노크로스한인교회(박희철, 678-978-2099)
뉴난한인감리교회(남성원, 770-683-9381)
라그레인지한인연합감리교회(김형렬, 706-407-8296)
사바나한인연합감리교회(박진원, 912-355-8225)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송희섭, 770-495-8020)
아틀란타베다니한인감리교회(남궁전, 678-546-5700)
아틀란타한인교회(조영진, 678-381-1004)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이준협, 770-321-0020)
존스크리한인연합감리교회(서정일, 770-497-8215)
트리니티 한인교회(김경곤, 678-431-7924)
해밀턴말한인교회(정찬응, 770-271-4255)
하인스빌한인연합감리교회(김종길, 912-368-4875)

• **Hawaii(하와이 주)**

갈보리연합감리교회(남규우, 808-386-9672)
감람연합감리교회(이영성, 808-956-1004)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한이준, 808-536-7244)
베다니연합감리교회(최현규, 808-626-7434)
아름다운교회(오대현, 808-343-6839)
아이에아한인연합감리교회(이성현, 808-488-3018)
올리브연합감리교회(김배선, 808-622-1717)

• **Illinois(일리노이 주)**

갈릴리연합감리교회(엄모성, 847-998-4610)
남부시카고한인연합감리교회(김윤기, 708-799-0001)

네이퍼빌한인연합감리교회(최기환, 630-904-9191)
마콤한인연합감리교회(이정일, 309-768-2663)
비전교회(우민혁, 847-949-9705)
올랜드팍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이동근, 708-403-2007)
예수사랑감리교회(오치용, 217-419-5132)
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김태중, 847-534-2826)
샘물연합감리교회(박미숙, 847-712-0413)
시카고예수사랑감리교회(조선형, 847-372-6057)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김광태, 847-541-9538)
중앙연합감리교회(홍진호, 847-797-1144)
하이드팍한인교회(이우민, 773-643-2144)

• **Indiana(인디애나 주)**

블루밍톤한인교회(안성용, 812-331-2080)
인디애나폴리스제일연합감리교회(이기재, 317-894-4456)
퍼듀제자교회(이종민, 217-417-2288)

• **Iowa(아이오와 주)**

디모인한인연합감리교회(이병훈, 515-261-0600)
아이오와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최근임, 319-337-8397)
에임스사랑의교회(이병훈, 515-233-1063)
콰드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조항백, 563-359-4227)

• **Kansas(캔자스 주)**

위치타은혜연합감리교회(임일호, 316-239-6883)
정선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문주현, 785-762-4344)
캔사스한인중앙연합감리교회(송명철, 913-648-4277)
피츠버그사랑연합감리교회(정릉재, 620-231-2540)

• **Kentucky(켄터키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상순, 270-439-3297)

• **Louisiana(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즈한인연합감리교회(이동섭, 504-455-7883)
리스빌연합감리교회(나길섭, 337-537-5977)

• **Maine(메인 주)**

무지개연합감리교회(조태섭, 207-774-1617)

• **Maryland(메릴랜드 주)**

늘사랑연합감리교회(박종희, 443-763-4566)
베다니한인교회(박대성, 410-979-0691)
성령의불꽃교회(유재우, 703-276-8018)
솔즈베리한인연합감리교회(정남성, 410-860-0090)
에덴연합감리교회(신요섭, 667-206-4162)
워싱턴감리교회(이승우, 301-309-6856)

하늘비전교회(장재웅, 410-200-3859)

• **Massachusetts(매사추세츠 주)**

보스톤연합감리교회(안신형, 781-393-0004)
북부보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최진용, 978-470-0621)
비전교회(이충호, 617-864-1123)
성요한인연합감리교회(조상연, 781-861-7799)
안다옥한인연합감리교회(강명석, 978-534-3394)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김현태, 508-799-4488)

• **Michigan(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제일중앙연합감리교회(김대기, 248-545-5554)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김응용, 248-879-2240)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TroyHope(Anna Moon, 248-879-2240)
앤아버한인연합감리교회(조현준, 734-662-0660)

• **Minnesota(미네소타 주)**

멘케이토한인연합감리교회(유승찬, 507-382-6070)
미네소타한인복음연합감리교회(윤국진, 952-938-2142)
미네소타한인연합감리교회(백성범, 651-633-2434)
은혜한인연합감리교회(박형두, 612-859-5882)

• **Missouri(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명균, 314-426-5683)

• **Nevada(네바다 주)**

겨자씨한말교회(최영완, 702-595-3678)
라스베가스한인연합감리교회(라은진, 702-434-9915)

• **New Hampshire(뉴햄프셔 주)**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한상신, 603-430-2929)

• **New Jersey(뉴저지 주)**

가득교회(이강, 908-464-1807)
갈보리연합감리교회(양태건, 732-613-4930)
그레이크벤델교회(장학범, 201-242-8866)
남부뉴저지한인연합감리교회(박태열, 609-965-1222)
뉴저지연합교회(고한승, 201-816-1284-5)
뉴저지영광연합감리교회(임희영, 201-939-9726)
리빙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이정애, 973-994-0450)
리자우드연합감리교회-한어회중(안성훈 914-548-1685)
만모스은혜연합감리교회(정호석, 732-542-4321)
모리스타운교회(최상훈, 973-252-5252)
베다니한인연합감리교회(백승근, 973-694-3880)
아콜리연합감리교회(안명훈, 201-843-7970)
아펜젤라기념내리연합감리교회(조민호, 973-256-6831)
제자교회(이영기, 201-394-8446)

주님의은혜교회(최준호, 973-563-5365)
체리힐제일교회(김일영, 856-424-9686)
코너스톤교회(정희섭, 201-767-1172)
디렉한인연합감리교회(이재덕)

• **New Mexico(뉴멕시코 주)**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김기천, 505-341-0205)

• **New York(뉴욕 주)**

그리스도한인연합감리교회(정창훈, 347-233-1117)
뉴드림교회(김남석, 516-504-5612)
뉴욕감리교회(강원근, 516-681-0164)
뉴욕그레이트교회(양민석, 917-326-1723)
뉴욕삼산교회(이요섭, 718-680-0328)
뉴욕만백성한인연합감리교회(이종범, 718-701-4953)
뉴욕반석교회(김동규, 516-997-8620)
뉴욕베델교회(진세관)
뉴욕성서교회(김종일, 631-243-5683)
뉴욕주나목교회(문정용, 718-229-4024)
뉴욕한인교회(이용보, 212-662-1422)
로체스터제일교회(이진국, 585-662-5560)
로체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김동기, 585-872-0188)
롱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김재현)
모닝사이드연합감리교회(유명철)
메트로폴리탄한인연합감리교회(김진우, 212-758-1040)
미드허드슨한인연합감리교회(김윤태)
버팔로한인연합감리교회(국재현, 716-748-5886)
부르클린한인연합감리교회
스태튼아일랜드한인교회(정광원, 718-984-3333)
시라큐스스망연합감리교회(양현주)
아스토리아한인교회(진성인, 718-626-1278)
우리감리교회(김동현, 347-935-9348)
올바니한인연합감리교회(유화성, 518-387-9078)
웨체스터중앙교회(김철식, 914-948-8835)
퀸즈중앙감리교회(이요섭, 718-359-8388)
후러싱제일교회(김정호, 718-939-8599)

• **North Carolina(노스캐롤라이나 주)**

그린스보로한인연합감리교회(서준석, 336-852-8535)
아가페한인연합감리교회(엄성일, 919-469-1514)

• **Ohio(오하이오 주)**

맨스필드한인연합감리교회(유보현, 740-238-1219)
데이튼한인연합교회(유준식, 937-294-2018)
베델한인연합감리교회(이미란, 614-451-2085)
새생명연합감리교회(전기상, 248-659-7882)
아덴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근상, 614-764-8960)

영스타운한인연합감리교회(김현석, 330-743-7020)
 캐튼한인연합감리교회(유보현, 740-238-1218)
 콜럼버스한인연합감리교회(장이준, 614-882-5819)
 한마당연합감리교회(440-845-1728)
 한인매디슨빌연합감리교회(우용철, 513-271-1434)

• **Oklahoma(오클라호마 주)**

새빛연합감리교회(정기영, 580-536-6884)
 오클라호마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엄준노, 405-672-5062)
 털사한인연합감리교회(손태원, 918-622-0045)
 평강한인연합감리교회(김관영, 580-237-6611)

• **Oregon(오리건 주)**

오래곤투연합감리교회(박은수, 503-641-7887)
 포틀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오광석, 503-684-7070)

• **Pennsylvania(펜실베이니아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덕신, 215-280-5768)
 베들레헴한인연합감리교회(김중혁, 610-867-4437)
 벤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차명훈, 215-639-3120)
 소망한인연합감리교회(717-731-9190)
 인디애나한인연합감리교회(이성덕, 724-465-2015)
 필라델피아제일연합감리교회(홍정균, 215-542-5686)
 필라델피아교회(조병우, 215-884-5251)

• **Rhode Island(로드아일랜드 주)**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선우혁, 401-739-8439)

• **South Carolina(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그린빌연합감리교회(신규석, 864-567-3633)
 찰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배연택, 843-797-8199)
 콜럼비아한인연합감리교회(나웅철, 803-447-6186)

• **Tennessee(테네시 주)**

내슈빌한인교회(강희준, 615-373-0880)

• **Texas(텍사스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덕진, 214-901-1116)
 달라스북부중앙연합감리교회(조낙훈, 469-235-8041)
 달라스제일연합감리교회(박광배, 972-231-0057)
 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이성철, 972-258-0991)
 동산연합감리교회(유화청, 713-722-9553)
 동화연합감리교회(박경원)
 러벅연합감리교회(김다니엘, 316-218-8498)
 버먼트제일연합감리교회(박창수, 409-554-0550)
 성누가연합감리교회(소정일, 254-526-3993)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배혁, 210-341-8706)

우리만나연합감리교회(오오한, 817-657-4559)
 윌리엄스메모리얼연합감리교회-한인회중(이병설, 903-794-2882)
 웨슬리연합감리교회(주요한, 972-276-2098)
 웨이코한인연합감리교회(이진희, 254-757-2621)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권성철, 214-238-2003)
 킬린우리연합감리교회(전대우, 254-245-8029)
 휴스턴제일연합감리교회(정용석, 713-462-0708)
 St. Peter's UMC-Katy 한인회중(김데이빗 281-541-6286)

• **Vermont(버몬트 주)**

버먼트한미연합감리교회(배상철, 802-876-7622)

• **Virginia(버지니아 주)**

가나연합감리교회(박주섭, 703-339-8899)
 버지니아한인연합감리교회(민권홍, 757-484-5988)
 새빛교회(김은관, 703-385-3390)
 성가연합감리교회(최윤석, 757-877-2270)
 알링턴한인교회(류영성, 703-489-4596)
 애쉬번한인교회(강현식, 703-336-3679)
 엠마오연합감리교회(김철기, 804-272-5831)
 와싱턴사목교회(김영봉, 703-939-0559)
 와싱턴제일교회(정성호, 571-643-0800/0900)
 와싱턴한인교회(김영호, 703-448-1131)

• **Washington(워싱턴 주)**

시애틀연합감리교회(박세용, 206-406-6499)
 좋은씨앗교회(정요셉, 253-363-3169)
 타코마제일연합감리교회(박용규, 253-589-0882)

• **Washington D.C(워싱턴 D.C)**

알파커뮤니티한인교회(202-680-2394)

• **West Virginia(웨스트버지니아 주)**

헨팅톤제일한인연합감리교회(최연, 304-522-0357)

• **Wisconsin(위스콘신 주)**

메디슨한인연합감리교회(황선중, 973-525-9584)
 애플톤시온연합감리교회(정희권, 920-687-9191)
 참아름다운연합감리교회(김성근, 414-425-2530)
 케노샤한인연합감리교회(곽한두, 262-658-1131)

• **GAUM(괌)**

괌한인선교교회(김택수)

• **Russia(러시아)**

모스크바연합감리교회(조수진, 011-8-963-617-8439)

성경진도표

2022/01			2022/02			2022/03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창세기	1	01	창세기	27	01	출애굽기	1-2
02		주일	02		28	02	Ash Wed.	3
03		2	03		29	03		4
04		3	04		30	04		5
05		4	05		31	05		6
06		5	06		주일	06		주일
07		6	07		32	07		7-8
08		7	08		33	08		9-10
09		주일	09		34	09		11-12
10		8	10		35	10		13
11		9	11		36	11		14
12		10	12		37	12		15
13		11	13		주일	13		주일
14		12	14		38	14		16
15		13	15		39	15		17-18
16		주일	16		40	16		19-20
17		14	17		41	17		21-22
18		15	18		42	18		23-24
19		16	19		43	19		25
20		17	20		주일	20		주일
21		18	21		44	21		26
22		19	22		45	22		27
23		주일	23		46	23		28
24		20	24		47	24		29
25		21	25		48	25		30-31
26		22	26		49	26		32
27		23	27		주일	27		주일
28		24	28		50	28		33-34
29		25				29		35-36
30		주일				30		37-38
31		26				31		39-40

2022/04			2022/05			2022/06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마가복음	1	01	시편-II	주일	01	레위기	1
02		2-3	02		1-2	02		2
03		주일	03		3-5	03		3
04		4-5	04		6-7	04		4
05		6	05		8-9	05		주일
06		7	06		10-12	06		5
07		8	07		13-16	07		6
08		9	08		주일	08		7
09		10	09		17-18	09		8
10	고난주일	주일	10		19-21	10		9
11		11	11		22-24	11		10
12		12	12		25-27	12		주일
13		13	13		28-30	13		11
14		14	14		31-33	14		12-13
15		15:1-41	15		주일	15		14
16		15:42-27	16		34-35	16		15
17	부활주일	주일	17		36-37	17		16-17
18		16	18		38-39	18		18
19	고린도전서	1	19		40-41	19		주일
20		2-3	20		42-44	20		19
21		4	21		45-48	21		20
22		5-6	22		주일	22		21
23		7	23		49-50	23		22
24		주일	24		51-53	24		23
25		8-9	25		54-56	25		24
26		10-11	26		57-60	26		주일
27		12	27		61-64	27		25
28		13-14	28		65-67	28		26
29		15	29		주일	29		27
30		16	30		68-69	30		4
			31		70-72			

2022/07			2022/08			2022/09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사편III-V	73-75	01	민수기	1-2	01	로마서	1
02		76-77	02		3-4	02		2
03		주일	03		5-6	03		3
04		78	04		7	04		주일
05		79-81	05		8-9	05		4
06		82-83	06		10	06		5
07		84-87	07		주일	07		6
08		88-89	08		11-12	08		7
09		90-91	09		13-14	09		8
10		주일	10		15	10		9
11		92-97	11		16	11		주일
12		98-102	12		17-18	12		10
13		103-104	13		19	13		11
14		105	14		주일	14		12
15		106	15		20	15		13
16		107-108	16		21	16		14
17		주일	17		22	17		15
18		109-112	18		23-24	18		주일
19		113-118	19		25	19		16
20		119:1-56	20		26	20	고린도후서	1-2
21		119:57-112	21		주일	21		3
22		119:113-176	22		27	22		4:1-5:10
23		120-125	23		28	23		5:11-7:1
24		주일	24		29	24		7:2-16
25		126-132	25		30	25		주일
26		133-137	26		31	26		8-9
27		138-140	27		32	27		10
28		141-143	28		주일	28		11
29		144-146	29		33	29		12
30		147-150	30		34-35	30		13
31		주일	31		36			

2022/10			2022/11			2022/12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신명기	1	01	여호수아	1	01	마태복음	3-4
02		주일	02		2	02		5
03		2	03		3	03		6
04		3	04		4	04		주일
05		4	05		5	05		7
06		5-6	06		주일	06		8
07		7-8	07		6	07		9
08		9	08		7	08		10
09		주일	09		8	09		11
10		10-11	10		9	10		12
11		12	11		10	11		주일
12		13-14	12		11	12		13
13		15	13		주일	13		14
14		16-17	14		12	14		15
15		18	15		13	15		16
16		주일	16		14	16		17
17		19-20	17		15	17		18
18		21	18		16-17	18		주일
19		22	19		18	19		19
20		23	20		주일	20		20
21		24-25	21		19	21		21
22		26	22		20	22		22
23		주일	23		21	23		1
24		27	24		22	24		2
25		28	25		23	25	성탄절	주일
26		29	26		24	26		23
27		30	27		주일	27		24
28		31	28	요엘	1	28		25
29		32	29		2	29		26
30		주일	30		3	30		27
31		33-34				31		28

기쁨의 언덕으로 Pleasant Hill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

Nehemiah Project P.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 ❖ 이메일 kumcdevotion@gmail.com
- ❖ 발행인 류재덕(연합감리교회 한인 총회장)
- ❖ 운영위원장 이성현(한인총회 느헤미야 운동)
- ❖ 편집인 류계환(한인총회 선교총무)
- ❖ 편집기획 김종완(느헤미야 운동)
- ❖ 영어번역 양훈, 박길재, 김종완, Ester Kim
- ❖ 목회자 기획위원 김진우, 박효연, 방승호, 배연택, 배혁, 조기현, 조선형, 이보영, 유혁재, 차세진, 강현중, 서준석
- ❖ 평신도 편집위원 유경진, 정창호, 조숙희, 하금숙, 조윤희
- ❖ 편집문의 kumcdevotion@gmail.com
- ❖ 배송/결제문의 salesusa@hosanna.net / 562-944-5344 (호산나미디어)

함께 하신 분들

- ❖ 언덕 위의 소리(Voices from The Hill) / 소그룹 모임 교재
박효연 전도사 (체리힐제일교회, NJ)
- ❖ 주일 칼럼
김철기 목사 (엠마오연합감리교회, VA)
박광배 목사 (달라스페어뷰교회/구 달라스제일연합감리교회, TX)
박성환 목사 (밸리연합감리교회, CA)
이대규 목사(케노사한인연합감리교회, WI)

- The ESV® Bible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copyright® 2001 by Crossway, a publishing ministry of Good News Publishers. ESV® Text Edition: 2011. The ESV® text has been reproduced in cooperation with and by permission of Good News Publishers. Unauthorized reproduction of this publication is prohibited. All rights reserved.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is adapted from the Revised Standard Version of the Bible, copyright Division of Christian Education of the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the U.S.A. All rights reserved
- Illustrations by Swiss artist and storyteller Annie Vallotton, as taken from the Good News Translation@1976,1992 American Bible Society.Used by permission.
- 본서에 사용한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로서 허락을 받고 사용했습니다.
- Copyright by HOSANNA & OneBody
- 구독변경 및 신청문의 salesusa@hosanna.net